ISSN 1223-9683

博 物 館 紀 要

27

2012. 05.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목 차

❖ 論　　文

朝鮮時代의 石造浮屠 ····· 鄭永鎬 ····· 5

朝鮮前期의 石造浮屠 ····· 崔仁善 ····· 13

朝鮮後期의 石造浮屠 ····· 洪性益 ····· 29

朝鮮後期 楓潭大師의 分舍利 浮屠와 塔碑 ····· 嚴基杓 ····· 59

부록 : 分舍利에 의한 浮屠 建立 現況 ····· 嚴基杓 ····· 86

❖ 彙　　報 ····· 99

朝鮮時代의 石造浮屠

鄭 永 鎬*

Ⅰ. 시대 개관
Ⅱ. 전기의 석조부도
Ⅲ. 후기의 석조부도
Ⅳ. 범종형 부도(梵鍾型 浮屠)
Ⅴ. 부도밭(浮屠群)

Ⅰ. 시대 개관

조선은 국초부터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정책이었음을 창업 당시 태조의 국시(國是)에서 곧 알 수 있다. 더욱이 제3대 태종(1401~1418년)은 불교에 가혹한 탄압을 가하여 전국에 242개소의 사찰만을 남기고 이 밖의 사찰은 모두 폐사토록 하였으며 동시에 이들 사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였다. 이후 제9대 성종(1470~1494년)때 이르러는 더욱 강력한 억불책을 써서 태조가 실시하였던 도첩제(度牒制)까지 전폐하여 출가입산(出家入山)을 일체 금하였다. 제11대 중종(1506~1544년)은 승과(僧科)를 폐지함으로써 불교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끊어 놓았으니 이와 같은 정책은 불교계에 매우 큰 타격을

* 단국대학교 석좌교수・석주선기념박물관장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억제와 탄압중에서도 제4대 세종(1419~1449년)과 제7대 세조대(1455~1468년)에는 불교가 활기를 띠어 사찰이 다시 일어나고 승려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은 두 임금의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로 세종은 궁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두었고, 세조는 원각사(圓覺寺)를 지었으며 한편 간경도감(刊經都監)을 두어 여러 가지 불경을 언해(諺解)로 간행하였다.

이러한 앞·뒤 관계에서 태조가 비록 국가적으로 배불의 정책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가 잠저시(潛邸時) 무학대사(無學大師)와의 관계를 잊을 수 없으며 특히 제13대 명종(1546~1567년) 때에 이르러서는 문정왕후(文定王后)가 섭정을 하면서 명승 보우(普雨)를 중용하여 불교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당시 봉은사(奉恩寺)를 선종(禪宗)의 본산으로 삼고 봉선사(奉先寺)는 교종(敎宗)의 본산으로 삼아 선종과 교종의 양종을 두었으며 왕 7년(1552)에 승과제도와 도첩제를 부활시켰던 것이니 이러한 모든 관계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불교 미술은 이렇듯 국초 이래 여러 왕의 정책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대인 고려나 신라시대와 같은 불교국과 달라서 역대 왕들의 호불(好佛)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 태조 때 석왕사(釋王寺)를 이룩하였던 일과 세조가 원각사를 창건하고 명종 때에 이르러 봉은사와 봉선사를 크게 중창하였던 사실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배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조선시대의 불교적인 조형 미술은 위축되었으니 석조 부도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국초에 있어서는 그 전대인 여러 가지 양식 수법의 전승기로 볼 수 있으며 창의적인 조형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고려시대의 양식과 수법을 이어받아 조형 활동의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중심하여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전·후기로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미술사에 있어서도 전·후기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따라서 전기의 석조 부도, 후기의 석조 부도로 나누어 각 조형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조선시대 부도는 임진왜란 이전의 고려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때의 것과 임진왜란 이후의 것에서 조각이나 양식에 현저한 차가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Ⅱ. 전기의 석조부도

이 시대의 석조부도로서 건조 연대가 확실하고 주인공을 알 수 있는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 부도는 다음의 5기를 대표로 들 수 있다.

①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靑龍寺普覺國師定慧圓融塔)

: 국보 197호, 충청북도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제1대 태조 2년(1393).

② 용문사정지국사부도(龍門寺正智國師浮屠)

: 보물 531호,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제1대 태조 7년(1398).

③ 회암사지부도(檜巖寺址浮屠)

: 보물 388호,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제3대 태종 7년(1407).

(사진 1)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융탑

(사진 2) 용문사정지국사부도

④ 복천사수암화상탑(福泉寺秀庵和尙塔)

: 보물 1416호,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면 사내리, 제9대 성종 11년(1480).

⑤ 복천사학조등곡화상탑(福泉寺學祖燈谷和尙塔)

: 보물 1418호,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면 사내리, 제11대 중종 9년(1514).

Ⅲ. 후기의 석조 부도

전기에 세워진 석조 부도들이 초기에는 고려시대 부도의 양식과 수법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으나 초기에서 벗어나 15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점차적으로 각부에서 생략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은 후기에 이르러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석조 부도의 형식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8각 원당형 부도의 건립은 쉽지 않았으며 1석으로써 쉽게 세울 수 있는 석종형 부도가 많이 세워졌을 것인데 후기에 이르러서도 8각 원당형의 형식을 보이는 부도가 가끔 있으며 석종형 부도라 하여도 탑신 자체에 글씨를 새기지 않고 별도로 탑비를 세운 예가 있어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용연사석조계단(龍淵寺石造戒壇)

: 보물 539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제15대 광해군 5년(1613).

② 봉인사사리탑(奉印寺舍利塔)

: 보물 928호, 현재 경복궁 마당에 옮겨 세움, 제15대 광해군 12년(1620).

③ 연곡사서부도(鷰谷寺西浮屠)

: 보물 154호,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제17대 효종 원년(1650).

(사진 3) 봉인사사리탑

(사진 4) 연곡사부도

Ⅳ. 범종형 부도(梵鍾型 浮屠)

전형적인 신라 석조부도의 양식으로 팔각원당형이 있고 특수한 형태로 범종형(梵鍾型)이 있다. 즉 신라와 고려시대에 이르러 팔각원당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편 간혹 범종형 부도가 건립되기도 하였다.

범종형이라 함은 부도의 형성된 겉모양이 범종(梵鍾)의 형태와 같기도 하고 혹은 비슷하다는데서 생긴 명칭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범종형 부도」는 주로 고려시대 말기 이후 조선왕조 전 시대를 통하여 가장 많이 건조되어 그 유례가 제일 많다. 그런데 실제로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초반에도 세워진 범종형 부도가 있어 신라시대 건립으로 울산

광역시 박물관의 태화사지십이지상부도(太和寺址十二支像浮屠, 보물 제441호)와 고려 초기 건립으로 전라북도 김제시의 금산사석종(金山寺石鍾, 보물 제26호) 등이 있으므로 그 시원은 신라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범종형은 한 돌로서 범종 모양으로 치석하여 세우므로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가장 편한 조형물이다. 그리하여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으로는 그 여건이 범종형 부도 건조에 적합하였으므로 범종형 부도의 건립, 발달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부언할 것은 「범종형 부도」라는 명칭이다.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석종형 부도」라 칭하였던 바, 이 호칭은 「돌종, 돌로 만든 종, 종의 형태와도 같은 석조물」이라는 뜻인데 실제 조형(造型)에 맞지 않는다. 「종형부도(鍾形浮屠)」는 서양식 종의 형태와는 달리 불교적인 종, 즉 범종(梵鍾)이어야 하므로 「범종형 부도」라고 칭하는 것이 옳은 칭호인 것이다.

(사진 5) 태화사지십이지상부도

(사진 6) 사나사원증국사부도

Ⅴ. 부도밭(浮屠群)

조선시대의 특징으로 「부도밭」이 형성된 것이다. 부도밭은 불가(佛家)의 고유한 용어로 부도를 한곳에 건립한 무리 군(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부도밭은 속세인(俗世人)들의 공동묘지(共同墓地)와도 같은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 이전에는 부도밭이란 없었던 것 같다. 신라시대 9산 선문의 조사(祖師)들의 부도는 모두 명당자리에 건립하였고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고승대덕들의 부도는 그 제자 문도들이 역시 좋은 자리를 택하여 세웠으므로 부도밭의 형성은 어려웠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송광사에서 볼 수 있는바 각 국사의 부도는 그들의 문도들에 의하여 택지하였으므로 고려시대 명승대덕(名僧大德)들의 부도가 이곳저곳에 흩어져 부도밭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르러는 불교의 교세가 위축됨과 동시에 사찰의 사세, 승려들의 위치, 위상 등이 줄어들게 되어 넓은 지역의 소유가 어려워짐으로써 한 자리에 부도를 모시는 풍조가 일기 시작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는 공동체의 부도 성역이 이루어져 마침내는 사찰마다 그들의 산문(山門)에 「부도밭」을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전라남도 해남군의 대흥사 부도밭과 미황사 부도밭, 전라북도 완주군의 송광사 부도밭 등은 그 중에서도 유명하며 오늘에까지 부도밭 정리의 표본을 보이고 있음은 경상남도 양산시의 통도사 부도밭을 한 예로 들 수 있겠다.

(사진 7) 순천송광사부도밭

(사진 8) 양산통도사부도밭

朝鮮前期의 石造浮屠

崔 仁 善*

Ⅰ. 머리말
Ⅱ. 조선전기의 불교
Ⅲ. 조선전기 부도의 유형
Ⅳ. 조선전기 부도의 특징

Ⅰ. 머리말

조선시기는 불교계에 대해서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억불정책으로 일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전기는 부도의 조성 例가 많지 않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부도가 조성된 것은 문헌상으로는 7세기 정도에 나타나고 있으나, 실물로 확인 가능한 것은 9세기에 이르러서 조성된 진전사지 부도와 傳염거화상부도이다. 부도를 건립할 수 있는 승려는 통일신라시대에는 구산선문의 개산조나 법손제자로 왕사나 국사 등의 제도적인 지위보다는 소속 종파에 따라 부도가 건립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가 되면 종파에 상관없이 국사나 왕사에 오른 승려에 한해 부도를 세울 수 있게 된다.

*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즉 부도의 건립주체가 변화하는 것이다. 조선이 개국하면서 한동안은 국사나 왕사에 한 해 부도가 조성되는 고려의 전통을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학대사를 끝으로 왕사제도는 사라지고, 부도의 건립주체 역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부도는 살아생전의 법계나 제도적인 지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서 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승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부도의 형식으로 묘탑을 제작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조선전기의 부도 조성 예는 후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숫자가 얼마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前代의 팔각당형부도는 그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꾸준히 조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원구형부도와 석종형부도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그 부도의 특징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선전기의 불교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아 불교를 배척했던 조선 시대의 불교는 극심한 억압과 핍박 속에서 어렵게 그 명맥을 유지해 나갔다. 崇儒抑佛의 이념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했던 신진 사대부들에 의해 건국 초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太祖는 국가 창업 초부터 불교를 배척할 수 없다 하여 조정 유생들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그는 無學自招 대사를 왕사로 삼았으며 興天寺를 세우는 등 각종 불사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太宗대에 들어오면서 억불정책은 본격화되었다. 태종은 불교의 종파를 통폐합하고 사찰의 토지와 노비 등 사원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또한 사찰의 수와 僧尼를 감축하는 한편, 국사·왕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억불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런 정책은 世宗 때에도 계속되어 불교 종파는 禪·敎 양종으로 축소되고, 승려의 都城 출입마저 금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억불에 대한 저항이나 불교 부흥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종 6년에 省敏은 훼불의 즉각 중지를 상소하고, 涵虛(1376~1433) 스님은

『顯正論』1권을 지어 유학자들의 척불론을 정연한 논리와 유려한 필치로 논박하였다.

한편, 처음에는 억불책을 강행했던 세종도 그 말년에 이르러서는 궁내에 內佛堂을 짓고, 특히 훈민정음 반포 이후부터는 한글로 불서를 편찬하는 등 태도를 바꾸어 護佛에 나섰다. 그는 수양대군을 시켜 한글로 『釋譜詳節』을 짓게 하고 스스로 『月印千江之曲』을 지었다. 이것은 당시의 척불 분위기에 비추어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활동은 훈민정음 창제 초기에 한문 숭상의 유교보다는 중생 제도의 평등사상을 간직한 불교를 통하여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특히 世祖에 이르러 더욱 본격화하였다. 大君 시절부터 세종의 뜻을 받들어 한글 불서를 편찬하는 등 공공연히 불교를 옹호해 온 그는 왕위에 오르자 호불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세조는 圓覺寺를 비롯한 전국의 여러 사원을 중흥하고 불사를 크게 일으키는 한편, 스님의 권익 옹호와 불교의 지위 보장에 힘썼다. 또한 靈山會上曲과 蓮花臺舞를 창제하고 불교음악과 무용을 국악화하였다. 그의 흥불 노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刊經都監을 설치하고, 중요한 불교경전을 한글로 번역・간행한 일이다.

오늘날 한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 ≪月印釋譜≫를 비롯하여, ≪法華經≫・≪楞嚴經≫・≪金剛經≫・≪永嘉集≫ 등 수많은 한글 불서들은 모두 이 때에 간행된 것들이다.

세조의 이와 같은 흥불 정책이 있은 뒤, 성종・연산・중종을 지나는 동안 불교는 다시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다. 성종은 度牒制를 정지하고 승과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선종의 도회소인 興天寺와 교종의 도회소인 興德寺를 폐하여 관청으로 삼았다. 중종 때에 승과는 완전히 폐지됨으로써 선・교 양종 마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한 뒤 文定王后가 섭정하고서부터 불교는 다시 부흥의 기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문정왕후는 普雨 스님을 맞아들여 명종 5년(1550) 유생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굽히지 않고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奉恩寺를 선종의 수사찰로 奉先寺를 교종 수사찰로 삼았다. 또한 연산군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僧科를 다시 실시하는 등 불교 중흥을 꾀하였다. 이 때 부활된 승과에서 뒷날 조선 불교계를 이끌어간 西山・四溟과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배출된 것은 조선불교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그러나 명종 21년(1566)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또 다시 가혹한 척불정책이 계속되었다.[1)]

Ⅲ. 조선전기 부도의 유형

조선전기의 부도는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까지 주로 건립되었던 전형적인 부도의 유형이었던 팔각당식 뿐만 아니라 석종형, 원구형 등의 새로운 형식의 부도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 八角堂形浮屠

팔각당형 부도는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신석의 형태가 팔각이다. 팔각당형 부도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까지 지속적으로 조성된 전통적인 형태이다.

조선전기에 조성되는 팔각당형 부도는 이전시기의 전형적인 팔각당형 부도와 비교해 볼 때, 탑신석이 배가 불러 볼록한 형태를 하거나 높이가 높아지고 세장해지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나 탑신석이 팔각을 뚜렷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기단부, 탑신석, 옥개석 등의 구성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팔각당형 부도는 6기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1) 忠州 靑龍寺址 普覺國師塔(사진 1)

이 부도는 전체가 8각으로 조성되었는데, 지대석 위에 하대·중대·상대석을 얹어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로 탑신과 옥개석을 올려 탑신을 완성하였다. 기단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8각으로, 하대석에는 엎어놓은 연꽃무늬를, 상대석에는 솟은 연꽃무늬를 새겼다. 중대석에는 사자상과 구름에 휩싸인 용의 모습을 교대로 새겼다. 탑신의 몸돌은 각 면마다 무기를 들고 서 있는 神將像을 정교하게 새겨 놓았으며, 그 사이마다 새겨진 기둥에는 위로 날아오르는 이무기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다. 옥개석은 여덟 귀퉁

1) 김영태, 『한국불교사』 등.

이에서 높이 들려있는데 마치 목조건축의 아름다운 지붕 곡선이 살아난 듯하다. 상륜부는 모두 유실되어 다시 복원한 것이다.

(사진 1) 靑龍寺址 普覺國師塔

이 부도에서 특이한 점은 지대석 밑 지하에서 藏骨處(舍利藏處)가 조사된 것이다. 이것은 화강암 1석으로 조성한 것인데 외측면을 부등변 8각형으로 다듬고 상면에 원형으로 弧形의 몰딩을 마련하고 내면에 2중의 원공을 마련하였다. 이와 비슷한 예가 경남 하동의 전 신흥사지 노한당탑에도 있다. 지표를 평평하게 고르고 약 40cm 정도 깊이를 파고 자연석 1석(51cm×36cm, 두께 35.5cm) 상면에 원공(지름 21cm, 깊이 14cm)을 마련하여 묻고 그 위에 거의 6각형의 1매 자연판석(지름 88~106cm, 깊이 18~20cm)을 덮었다. 이 뚜껑석 즉 자연판석을 지대석으로 삼고 이 위에 부도의 기단을 놓았다. 이 부도는 탑신에 사리공이 없고 지하에만 사리공을 시설하고 있다. 여기에 사리와 그의 분골 등을 함께 봉안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

이 유구처럼 부도의 지하에 석관과 석실을 마련한 예가 더 있다. 광양 옥룡사의 추정 선각국사 도선의 부도(證聖慧燈塔) 석관[3)](길이 95cm, 너비 54cm, 높이 45cm), 강원도 원성의 興法寺 眞空大師 石棺[4)](길이 94cm, 너비 48cm, 높이 48cm), 강원도 영월의 興寧寺址 石棺[5)](길이 95cm, 너비 51.6cm, 높이 39.58cm), 경남 밀양의 瑩源寺址 팔각당식 부도 밑의 석실[6)] 등이 그것이다.

---

2) 정영호, 「중원 청룡사지의 조사 보각국사정혜원융탑과 탑비 및 석등을 중심하여」, 『사총』 12, 고려사학회, 1968.
정영호, 「조선전기 석조부도양식의 일고찰」, 『동양학』 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73, pp.333-334.

3) 최인선, 「광양 옥룡사 선각국사 도선의 부도전지와 석관」, 『문화사학』 제6·7호, 1997, pp.379-381.

4) 『문화재대관』(6권, 보물 4, 석조물), 한국문화재보호협회편, 1992, p.215.
이 석관은 부도와 함께 1931년 옮겨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다.

5) 정영호, 「사자산 흥녕사지 석조부도」, 『신라 석조부도 연구』, 신흥사, pp.237-243.

6) 윤용진, 「영원사지와 출토유물」, 『고고미술』 4권 6호(통권35호), 한국미술사학회, 1963.

2) 양평 龍門寺 正智國師塔(사진 2)

이 부도는 祖眼 등이 세운 것이며 지대석과 하대석이 4각이고 상대석과 탑신이 8각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인 모습이 8각을 이루고 있다. 하대석과 상대석에는 연꽃을 새기고, 북 모양의 중대석에는 장식 없이 부드러운 곡선만 보인다. 탑신에는 한쪽 면에만 형식적인 문비 모양이 조각되었다. 옥개석은 아래에 3단 받침이 있고, 처마 밑에는 모서리마다 서까래를 새겼다. 옥개석 윗면에는 크게 두드러진 8각의 지붕선이 있고, 끝부분에는 꽃장식이 있는데 종래의 형태와는 달리 퇴화된 것이다. 꼭대기에는 연꽃 모양의 장식이 있는 상륜이 놓여 있다.

(사진 2) 龍門寺 正智國師塔

3) 安國寺 行乎祖師 母塔(사진 3)

이 부도는 팔각당식을 취하고 있으며, 8각의 높은 지대석과 하대석이 1석을 이루고 있다. 8각의 중대석이 높은 편이며, 상대에는 앙련의 연화문이 있다. 8각 탑신 역시 높게 표현되어 고려후기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행호조사[7]는 1418년에 大慈庵의 주지를 하다 세종이 즉위하자 判天台宗師를 삼았다. 이후 지리산 함양 金臺寺와 安國寺, 장흥 修淨寺를 창건하고 1436년 白蓮寺를 마지막으로 중창하였다. 1438년 행호조사는 興天寺의 주지를 맡게된다.

(사진 3) 安國寺 行乎祖師 母塔

7) 황인규, 「조선초 천태종 고승 행호와 불교계」, 『한국불교학』 35호, 한국불교학회, 2003, pp.215-216. 이수정, 「조선전기 승탑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9, pp.13-14.

행호는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자 장례를 잘 치르고 세종 20년(1438) 세종이 부를 때까지 지리산 일대에 머무르면서 사찰을 중건하며 불법을 폈다고 한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이 부도는 행호가 안국사를 창건하고 머무르던 시기인 1418~1430년 사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순천 松廣寺 高峰和尙塔(사진 4)

(사진 4) 松廣寺 高峰和尙塔

이 부도는 지면에 판석에 가까운 자연석을 깔아 견고하게 기초를 다진 후 그 위에 세웠다. 지대석은 방형 2단이며, 기단의 하대·중대·상대석은 평면이 원형이다. 탑신은 8각이며, 세장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탑신의 남면에 액을 마련하고 그 안에 '高峯之塔'이라고 음각하여 주인공을 알 수 있다. 8각의 옥개석은 경사가 심하며 그 위에 보주형 상륜이 있다.

고봉화상은 諱 法藏, 승명 志崇, 호 高峰이며, 세수나 법랍을 알 수 없어 출생연도는 알 수 없다. 그는 고려말기인 20대 무렵 승과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대의 대표적인 승려라 할 수 있는 禪覺王師 惠勤(1320~1376)의 법을 받았다. 조선 건국 후 송광사로 와서 국왕으로부터 교지를 받아 송광사에 대한 중창 불사를 시작하였다. 그는 송광사에서 저술활동을 하다가 1428년 7월 21일에 마지막 게송을 남기고 입적한다. 이에 문도들이 유체를 화장한 후 유골을 함에 넣어 침실에 안치하였다. 1429년 문두들이 사리 2과를 얻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사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1430년 가을에 사리탑을 치석하기 시작하여 겨울철에 마치게 되자 곧바로 부도 안에 대사리 4과를 봉안하였다. 또한 유골을 수정통에 담아 백동으로 만든 통에 넣고 푸른 명주로 감싸 부도에 봉안했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고봉화상탑은 1430년 경에 조성되었다고 보여진다.[8)]

5) 문경 鳳巖寺 己和大師 涵虛堂得通塔(사진 5)

이 부도는 3단으로 이루어진 기단 위로, 탑신의 몸돌과 옥개석을 올린 후 상륜을 얹어 마무리 하였는데, 각 부분이 8각의 평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단에서 하대석은 연꽃무늬를 둘러 새겼다. 탑신에 '함허당득통지탑(涵虛堂得通之塔)'이라 음각하여 그 주인공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액자 모양의 윤곽을 두른 후 그 위아래에 조각을 두어 장식하였다. 옥개석 윗면에는 기왓골이 표현되어 있으며, 처마는 양끝이 위로 살짝 들려 있다. 상륜에는 일부 없어진 상륜부가 차례대로 올려져 있다.

(사진 5) 鳳巖寺 己和大師 涵虛堂得通塔

함허당(1376~1433)의 호는 득통으로, 21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세종의 부름을 받아 4년동안 대차어찰에 머무르며 교화를 하였고, 봉암사를 새로이 보수하기도 하였다. 이 절에서 『금강설의』를 지었으며, 세종 15년(1443)에 입적하였다.

6) 부여 無量寺 金時習塔(사진 6)

이 부도는 아래에 3단을 이루는 기단을 마련하여 그 위로 탑신과 상륜부를 올렸는데 모든 부재의 단면이 8각을 이루고 있

(사진 6) 부여 無量寺 金時習塔

8) 엄기표, 「고려후기 송광사 출신 16국사의 석조부도 연구」, 『문화사학』 29호, 한국문학사학지, 2008, pp.74-77.

다. 기단은 하·상대석에 연꽃을 장식하고, 중대석에는 구름에 쌓인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 형상을 새겼다. 3단의 기단 가운데 중대석을 높게 한 점이 특이하다. 탑신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고, 연꽃덮개가 조각된 옥개석은 꽃장식이 달린 여덟 귀퉁이가 높게 들려있다. 상륜에는 복발과 보주 등이 남아 하고 있다.

김시습(1435~1493)은 생육신의 한 분으로, 21세 때에 수양대군(후의 세조)의 왕위찬탈 소식을 듣고 불교에 입문하여 만년을 무량사에서 보내다 입적하였다. 일제시대 때 폭풍우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도가 함께 넘어졌는데 그 때 밑에서 사리 1점이 나와 국립부여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표 1〉 조선전기에 조성된 부도 일람표[9)]

	浮 屠 名	時 期	類 型	地 域	塔碑有無	舍利器
1	靑龍寺 普覺國師定慧圓融塔	1394년	팔각당형	충청북도 충주	○	
2	華藏寺 指空定慧靈照塔	1393년 추정	석종형	개성 용흥동(북한)	×	
3	龍門寺 正智國師塔	1395년	팔각당형	경기도 양평	○	
4	檜巖寺 無學大師洪融塔	1397년	원구형	경기도 양주	○	
5	安國寺 行乎祖師 母塔	1418년 이후	팔각당형	경상남도 함양	×	
6	松廣寺 高峰和尙塔	1430년	팔각당형	전라남도 순천	×	○
7	淨水寺 己和大師涵虛堂得通塔	1433년경	원구형	강화도	×	
8	懸燈寺 己和大師涵虛堂得通塔	1433년경	원구형	경기도 가평	×	
9	鳳巖寺 己和大師涵虛堂得通塔	1433년경	팔각당형	경상북도 문경	×	
10	水鍾寺 貞懿翁主塔	1439년	원구형	경기도 남양주	×	
11	正陽寺 懶翁 石鍾形浮屠	1465년	석종형	강원도 금강산(북한)	×	
12	法住寺 福泉庵 秀庵和尙塔	1480년	원구형	충청북도 보은	×	
13	無量寺 金時習塔	1495년	팔각당형	충청남도 부여	×	○
14	法住寺 福泉庵 學祖燈谷和尙塔	1514년	원구형	충청북도 보은	×	
15	直指寺 學祖燈谷和尙塔	1514년경	원구형	경상북도 김천	×	
16	傳 新興寺址 盧閑堂塔	1582년	원구형	경상남도 하동	×	

9) 이수정, 앞의 논문에서 약간 첨삭하여 작성하였다.

2. 圓球形浮屠

圓球形 부도는 八角堂形 부도와과 같이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탑신석이 球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 부도에서 탑신석은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부로서 우리나라 부도 가운데 구형의 탑신이 채용되는 최초의 예는 淨土寺 弘法國師實相塔(1018년)이다. 이후 원구형 부도가 조성되지 않다가 고려말 太古寺 圓證國師塔을 비롯해 북한의 深源寺 부도 등이 조성되면서 다시 탑신이 구형인 부도가 건립된다. 이들 부도은 탑신석이 팔각당형부도와는 달리 각이 표현되지 않는 球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탑신석의 형태는 다르지만 팔각당형 부도와 같이 팔각의 상, 중, 하대석으로 기단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팔각의 옥개석을 채용하고 있다.[10]

14세기 후반 중국의 浙江省이나 山東省의 몇몇 사찰에 송・원대에 만들어진 원구형 부도가 존재하며, 나옹이 원나라 유학을 통하여 중국 臨濟宗 平山과 인도승 指空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강남을 여행하면서 臨濟宗 승려의 원구형 부도를 참배하면서 이를 檜巖寺址 指空塔에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1]

〈표 2〉 고려말 ~ 조선전기의 圓球形 浮屠[12]

深源寺 僧塔 (고려말, 황해도 연탄)	太古寺 圓證國師塔 (1385년, 경기도 고양시)	檜巖寺 無學大師洪融塔 (1397년, 경기도 양주)	淨水寺 己和大師 涵虛堂得通塔[13] (1433년경, 강화도)

10) 이수정, 앞의 논문, pp.17-19.
11) 趙倖進,「조선전기 구형부도의 시원에 관한 고찰 – 회암사지부도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pp.21-23.
12) 이수정, 앞의 논문.

懸燈寺 己和大師 涵虛堂得通塔 (1433년경, 경기도 가평)	水鐘寺 貞懿翁主塔 (1439년, 경기도 남양주)	法住寺 福泉庵 秀庵和尙塔 (1480년, 충북 보은)	法住寺 福泉庵 學祖燈谷和尙塔 (1514년, 충북 보은)
直指寺 學祖燈谷和尙塔[14] (1514년경, 경북 김천)			

13) 이 부도는 탑비나 탑주명이 따로 세겨져 있지 않아 逸名부도이나 엄기표는 논문에서 「淨水寺誌」와 『江華新志』의 기록을 토대로 이 부도를 기화대사 함허당의 분사리부도로 추정하고 있다(嚴基杓, 앞의 논문, 2006, p.166).

14) 현재 직지사에 조성되어 있는 이 부도는 逸名부도로 탑주를 알 수 없다. 그러나 『山中日記』에서는 직지사에서 학조등곡화상의 부도를 보았음을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도 직지사에 부도가 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도는 수암화상탑과 전체적인 조형과 부도의 형식이 유사하여 학조등곡화상탑의 분사리 부도로 생각한다. 학조등곡화상의 두 부도는 법주사 복천암의 수암화상탑을 모방하여 제작하면서 직지사에는 거의 똑같은 형태로 모방하였다면, 법주사 복천암의 학조등곡화상탑은 귀꽃 등 세부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모방하여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정시한, 『山中日記』, 國學資料院, 1999, p.17; 聖寶文化財保存硏究院, 『直指寺 – 本寺篇』, 1995, p.200 참조).

3. 石鐘形浮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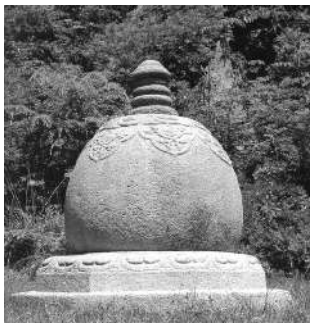
石鍾形부도는 方形 2중 기단에 석종형의 탑신부를 갖추고, 옥개석은 없이 상륜부가 바로 탑신부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부도이다.

현재 조선전기의 석종형부도는 대부분 북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한지역에 위치한 부도로는 神勒寺 普濟尊者 석종형부도와 舍那寺 圓證國師塔이 있다.

먼저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은 넓게 터를 다져 지대를 구성하고 높게 단을 형성하여 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석재를 고르게 쌓아 가구식으로 기단을 쌓고 기단의 전면과 양측면에 유일하게 계단을 설치하여 특징적이다.

사나사 원증국사탑은 원증국사 보우의 분사리 부도로 기단부는 방형의 석재를 둘러 넓게 지대를 다지고 방형으로 탑신을 받치는 괴임을 두었다. 괴임에는 각면에 2개의 탱주를 두어 3분하고 있으며, 괴임의 상면에는 탑신을 따라 복판 연화문을 둘렀다. 탑신은 석종형으로 梵鍾의 천판에 해당하는 부분에 복판연화문이 새겨져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그 수를 알 수 없고, 지금은 탑신 전체를 이끼가 덮고 있어 확인하기 어렵다. 석종형의 탑신과 한돌로 이루어진 화염보주가 있다.

〈표 3〉 石鐘形浮屠[15]

華藏寺 指空定慧靈照塔 (1393년 추정, 개성 용흥동)	金藏庵址 부도 (고려말, 강원도 금강산)	神勒寺 普濟尊者 석종형부도 (1376년,[16] 경기도 여주)
		

15) 이수정, 앞의 논문.

舍那寺 圓證國師塔 (1383년, 경기도 양평)	正陽寺 懶翁 石鍾形 부도 (1465년 추정, 강원도 금강산)	鳳巖寺 圓證國師塔 추정 (조선전기 추정, 경북 문경)

Ⅳ. 조선전기 부도의 특징

조선전기는 국가의 억불정책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부도가 건립되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시대의 부도는 팔각당식의 부도가 그 주류를 형성한데 비해 조선전기는 팔각당식을 비롯해 원구형과 석종형의 부도가 조성되어 다양한 형식의 부도가 출현하게 된다.

이수정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전기의 부도는 발원자 계층에 따라 王室發願에 의해 조

16) 신륵사 보제존자석종의 정확한 건립시기는 알 수 없으나 1377년에 세워진 회암사의 「禪覺王師之碑」의 '八月十五日樹浮圖於寺之北崖頂骨舍利厝于神勒寺示其所終也覆以石鍾戒其無敢訛也(8월 15일에 부도를 회암사 북쪽 언덕에 세우고, 정골사리는 신륵사에 조장하였으니, 열반한 곳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사리를 밑에 모시고 그 위에 석종으로서 덮었으니, 감히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함이다.)' 기록을 통해보면 회암사에 부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신륵사에는 석종의 형태로 부도가 세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륵사의 부도는 나옹의 입적시기인 1376년 5월 15일 이후 회암사에 탑비가 세워진 1377년 6월 이전일 것으로 생각한다(李智冠 譯註, 「驪興郡 神勒寺 普濟舍利石鍾記」『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伽山文庫, 1997, pp.372-374; 李智冠 譯註, 「禪覺王師之碑」, 위의 책, pp.348-353. 참조).

성된 부도와 일반 승려의 제자나 문도들에 의해 세워진 民間發願 부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민간발원 부도는 문양을 생략하여 간략하게 조성하였지만, 왕실발원 부도는 당초문, 화문, 운룡문 등으로 부도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17] 왕실발원 부도 가운데 水鐘寺 貞懿翁主塔은 운룡문을 탑신석에 가득하게 장식하고 있으며, 기단부에 당초문과 화문을 표현하여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전기의 팔각당형부도 가운데 松廣寺 高峰和尙塔, 鳳巖寺 己和大師 涵虛堂得通塔과 같이 탑신이 세장한 형식을 이룬 부도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송광사 1세인 보조국사 지눌의 부도를 제외한 나머지 송광사 16국사 부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처럼 탑신이 세장한 형식은 1221년 포항 보경사의 원융국사탑에서 처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신형식의 부도는 고려인들의 창안품인지 아니면 중국의 영향하에 조성되었는지 자못 궁금하다.

중국의 북경 교외에 위치한 潭柘寺 부도전에 전탑형식의 부도와 석조부도가 조성되어 있다. 석조부도 가운데 了奇禪師幢塔[18], 相了禪師幢塔[19], 宗公大禪師幢塔[20], 歸云大禪師幢塔[21], 政言禪師幢塔[22] 등이 있는데 탑신부가 모두 세장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조성시기는 1170년대부터 1270년대로 약 1세기에 걸쳐 있다. 고려시대의 부도와 다른 점은 옥개석이 1개가 아니라 3~7개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부도 가운데 탑신이 세장한 부도는 1221년에 조성된 포항 寶鏡寺 圓融國師塔이 처음으로 등장 한 후 1235년에 건립된 송광사 2세 眞覺國師 圓照塔 이후 송광사 국사들의 부도에 집중적으로 보이고 있다. 고려의 세장형부도가 중국의 담자사에 있는

17) 부도 조성의 발원자에 대한 분석을 치밀히 한 후에 이러한 견해를 발표했다면 더욱 수긍이 갈 것으로 보인다.

18) 요기선사(1119~1170)는 金代의 저명한 승려이며, 大定 10년(1170)에 입적하였다. 따라서 그의 부도는 그가 입적한 후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19) 상료선사(1134~1203)는 遼寧 의주인으로 어려서 출가한 후 화암과 원각경 등을 설렵하였다. 그는 泰和 3년(1203)에 입적하였다.

20) 종공대선사는 이름 覺宗, 자 道玄, 별호 秋溪이며, 담자산 용천선사 제23대의 禪師였다. 이 부도는 至元 9년(1272)에 건립되었다.

21) 귀운대선사는 이름 志宣, 자 仲微이며, 속성은 李氏이며, 몽고 定宗 2년(1247)에 부도가 건립되었다.

22) 정언선사는 1125년에 출생하여 9세에 출가하였으며, 1185년에 입적하였다. 이 부도는 大定 28년(1188)에 건립되었다.

탑신 세장형부도들보다 반세기 이상 늦게 조성되고 있으므로 중국 부도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23]

고려시대의 부도는 국사와 왕사의 지위에 오른 승려에 한해 세울 수 있는 조형물로서 고승이 하산하거나 입적한 사찰에 1기의 보도만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24] 그러나 나옹과 인도 승려인 지공의 부도가 여러 곳에 분사리되어 세워짐으로서 고려말에 분사리 부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전통이 조선전기에 그대로 반영되어 분사리 부도의 조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고려말의 인도 승려인 지공의 영골이 분사리되어 제자인 나옹에게 전해져 檜巖寺, 安心寺, 華藏寺 등에 부도가 건립된다. 선각왕사 비문에 의하면 나옹의 부도는 金剛山, 雉岳山, 小白山, 四佛山, 龍門山, 九龍山, 妙香山, 天寶山 檜巖寺, 鳳尾山 神勒寺 등 총 9곳에 法服, 法器, 佛子, 柱杖, 坐具 등이 나누어져 안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威鳳寺, 廣法寺, 원주 令傳寺址에도 나옹의 부도가 세워졌다고 한다.[25] 선각왕사 나옹의 경우 法身舍利까지도 분사리되어 부도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옹은 고려 불교계에서 生佛로 추앙받았던 인물이다. 당시 불교계에서의 나옹의 이러한 지위는 나옹의 입적 이후 불탑과 같이 분사리하여 여러 사찰에 부도를 건립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나옹이 분사리하여 부도를 세운 것은 普愚의 부도건립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382년에 입적한 圓證國師 普愚는 太古寺, 舍那寺, 陽山寺, 小雪庵 등에 부도가 건립된 것으로 전한다.[26]

나옹에 의해 시작된 분사리 부도의 조성은 조선 개국 이후 1433년에 입적한 己和大師 涵虛堂(1376~1433)의 부도로 계승된다. 기화대사의 부도는 孝寧大君(1396~1486)이 사리를 친견한 후 문도들에게 명하여 四寺에 石室을 만들고, 영골을 안장하도록 한다.[27]

---

23) 중국 탑신 세장형부도의 시원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앞으로 어느 시대부터 이러한 형식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24)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3, p.570.

25) 嚴基杓, 「會巖寺址의 石造浮屠와 塔碑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第21號, 韓國文化史學會, 2004, p.800.

26) 陽山寺는 지금의 문경 鳳巖寺로 원증국사의 부도로 전하는 石鍾이 남아있다. 小雪庵은 현재 경작지로 변하여 塔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그 외에 청송사에도 원증국사의 사리를 봉안한 석종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嚴基杓, 위의 논문, 2004, p.800 참조).

기화대사 함허당의 부도는 문경 鳳巖寺, 강화 淨水寺, 가평 懸燈寺, 烟峯寺 등에 부도를 세운다.[28] 이후 梅月堂 金時習(1435~1493)의 부도는 無量寺, 白蓮寺 등에 건립되고, 學祖燈谷和尙은 法住寺 福泉庵과 直指寺에 분사리되어 건립되었다.

분사리 부도는 원지배하의 혼란한 시기에 지공의 선풍과 불교계의 상황과 생불로 추앙받았던 나옹의 지위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불탑과 같은 형식의 부도와 함께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분사리 부도는 조선후기 西山大師(1520~1604)의 경우 普賢寺와 安心寺, 大興寺 등에 부도를 조성하며, 浮休堂 善修大師는 海印寺, 松廣寺, 七佛庵, 百丈庵 등에 분사리하여 보도를 조성하였다. 이처럼 분사리 부도는 고려말 나옹을 시작으로 조선전기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부도조성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29]

그리고 고려 후기에 이어서 조선전기에도 석종형부도가 조성되었다. 석종형부도의 시원에 관해서는 고려후기 이전에 있었던 스투파형 탑의 영향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 계단형 불탑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30] 지공, 보우 등의 보도가 석종형으로 건립된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조선 후기에 淸虛堂 休靜(1520~1604), 四溟堂 惟政(1544~1610), 浮休堂 善修(1543~1675) 등의 부도로 계승되었으며, 조선후기에는 많이 조성되었다.

---

27) '孝寧大君閣下 親所宸聰 命諸徒弟 樹浮屠於四處 不日之間七衆子來 造石室以安厝'(「涵虛堂得通和尙行錄」, 『休靜 淸虛集(補遺)』, pp.7-251).

28) 효령대군이 직접 발원하여 부도를 건립한 것은 아니지만, 효령대군과 기화대사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嚴基杓, 위의 논문, 2006, p.155 참조).

29) 이수정, 앞의 논문, p.72.

30) 석종형 부도의 시원에 관해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정영호와 소재구는 석종형 부도의 시원을 스투파의 영향으로 보고 있으며, 장충식과 여이숙은 계단형 불탑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蘇在龜, 위의 논문, 2001; 張忠植, 「韓國 石造戒壇考」, 『佛敎美術』 4, 동국대학교 박물관, 1979; 정영호, 「新羅 石造浮屠 硏究」, 檀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74; 呂易淑, 「고려시대 계단형 승합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무, 2007).

朝鮮後期의 石造浮屠*

洪 性 益**

Ⅰ. 머리말
Ⅱ. 조선후기 양대 법맥과 분사리 석조부도
Ⅲ. 浮屠群 別 석조부도의 특징
Ⅳ. 석조부도의 또다른 일례-재가자 석조부도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석조부도란 사전적인 의미로 승려가 입적한 후 그의 유체 또는 사리를 봉안한 석조조형물을 말한다.[1] 이러한 석조부도는 신라말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고려시대를 거쳐 현

---

* 이 원고는 필자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분사리 부도와 재가자의 부도 및 관련 법맥을 보완한 이후 「韓國 分舍利 浮屠(가칭)」라는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글에 실린 대부분의 사진은 불교문화재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의 사찰문화재』에 수록된 자료를 인용하였다. 자료를 제공해 주신 불교문화재연구소 미등 소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後稿할 때에 註記할 예정이다.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문학박사

1) 그동안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조영물과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조영물의 명칭을 구분하여 부르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석가모니의 사리를 봉안한 조영물을 佛塔, 승려의 사리를 봉안한 조영물을 僧塔이라고 부르자는 논의가 그 일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그동안 정착되어 있

재까지 전국적으로 조영되고 있다. 석조부도는 사각형의 기단에 팔각형의 탑신부와 옥개석을 하고 있는 양양 진전사 도의선사 석조부도를 시원으로 그의 제자 염거화상으로부터 고려말까지 팔각원당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 인도승이면서 원나라에서 주로 활동하고 고려에도 방문한 바 있는 지공의 석조부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형태의 석조부도가 건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지공과 그의 제자 나옹혜근 그리고 법맥은 달리하지만 동시기 승려인 태고보우를 기점으로 1인의 사리가 분장되어 팔각원당형, 원구형, 계단형, 스투파형, 석종형 등 다양한 양식으로 건립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전기에는 득통기화와 등곡학조로 이어지고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청허휴정과 부휴선수를 중심으로 더욱 활기를 띄어 조선후기 석조부도의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가자의 석조부도가 건립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조선전기에 재가자의 장례풍습이 승려의 부도 형태로 조영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1430년 경남 함양군 가흥리 안국사를 창건한 행호조사의 어머니 부도와[2] 경기도 남양주시 송촌리 수종사 정의옹주 부도를[3] 시작으로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많은 기수는 아니지만 전국적을 조성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석조부도 중에서 조선후기 불교계를 선도하는 청허휴정계와 부휴선수계의 직계제자 중에서 몇 사례를 찾아보고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조영되는 부도

던 석조부도라는 용어를 대치할 만큼 적절한 학술용어인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석탑을 불탑으로 부르자는 견해에는 큰 혼돈이 없다. 그러나 부도를 승탑이라고 했을 때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재가자 소위 청신녀 청신사 또는 거사, 보살의 사리탑을 승탑 용어에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僧이란 僧伽의 준말로 samgha를 음역한 용어이다. 승가의 본래 뜻은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를 의미하지만 현재는 僧을 출가승인 비구, 비구니만을 특정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바이, 우바새는 거사, 보살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가자의 사리를 봉안한 석조물까지 승탑이라고 칭하는 부분에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불탑과 승탑의 이분법적 용어보다는 재가자의 사리 조영물을 포괄할 수 있는 석조부도라는 기존의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黃仁奎,「조선초 天台宗 高僧 行乎와 불교계」,『韓國佛教學』35, 한국불교학회, 2003, pp.211-239.
불교문화재연구소,『한국의 사찰문화재』경상남도Ⅰ-2, 2009, p.220.
_____,『한국의 사찰문화재』인천광역시/경기도 1, 2012, p.366.

3) 이수정,「朝鮮前期 僧塔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80.
박아연,「水鐘寺 팔각오층 석탑 봉안 왕실발원 금동불상군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p.5.
박아연은 위의 논문에서 貞懿翁主를 貞惠翁主로 정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군 중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보고자 한다. 또한 고려말에 시작되지만[4] 조선후기에 가장 활발한 조영이 이루어지는 분사리 부도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개관해 보면서 그동안 학계로부터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던 재가자의 부도에 대한 시론적인 입장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조선후기 양대 법맥과 분사리 석조부도

고려말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법맥에 대한 여러 견해 중에서 고려말의 나옹법통설과 태고법통설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이후로는 환암혼수 – 구곡각운 – 벽계정심 – 벽송지엄 – 부용영관으로 계승되다가 청허휴정과 부휴선수로 양분되면서 이들의 법맥은 해남 대흥사를 중심으로 청허계, 화엄사와 송광사를 중심으로 부휴계가 번창한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5]

이 章에서는 청허와 부휴계의 대표적인 제자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면서 분사리 부도와[6] 계파간의 부도가 양식사적으로 또는 사찰별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등에 대하

---

4) 고려말에서 조선전기에 조영된 분사리 부도의 주인공과 봉안사찰은 아래와 같다.
① 指空(?~1367) : 회암사, 안심사, 화장사 ② 懶翁惠勤(1320~1376) : 회암사 · 안심사 · 화장사 · 신륵사 · 영원사 · 영전사 · 정양사 ③ 太古普愚(1301~1382) : 사나사 · 태고사 · 봉암사 · 소설암 · 청송사 ④ 得通己和(1376~1433) : 현등사 · 정수사 · 봉암사 · 연봉사 ⑤ 燈谷學祖(?~1520 이후) : 복천암 · 부도암.

5) 최병헌, 「韓國佛教法統說의 問題點」, 『僧伽』 6, 중앙승가대학, 1989, pp.78-85.
서정문, 「朝鮮時代 法統說에 대한 考察」, 『중앙승가대학 논문집』, 중앙승가대학, 1992, pp.27-60.
김방룡, 「부휴선수의 사상과 그의 법통관」, 『한국선학』 22, 한국선학회, 2009, pp.191-237.
김용태, 「조선후기 화엄사의 역사와 浮休系 전통」, 『지방사와 지방문화』 12-1, 역사문화학회, 2009, pp.281-409.

6) 이 장에서 언급하지 않은 조선후기 승려 중에서 사리를 분장한 스님은 아래와 같다. 전수조사가 아니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거나 행장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동명의 스님 부도는 제외하였다. 필자가 전국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20여명의 승려가 더 있는 것

여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청허휴정계

청허휴정은 부용영관을 법을 이었으며 조선후기에 가장 번창한 문파로 수많은 승려들을 배출하였다. 해남 대흥사의 13대 대종사와 대강사 중에서 8대 대강사인 벽담행인만이 부휴선수계이고 다른 대종사와 대강사들은 모두 청허계이며 경상도 일대에 분포한 고찰의 선승 대부분이 청허계로 분류될 정도로 번성하였다. 직계법손으로 편양언기, 소요태능, 정관일선, 송운유정이 유명하다.

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후 「韓國 分舍利 浮屠」라는 글로 발표할 시기에 재정리할 예정이다.

(1) 霽月敬軒(1544~1633) : 심원사, 표훈사, 천관사, 묘희암.
(2) 虛白明照(1593~1661) : 백화암, 심원사, 패엽사, 대흥사, 보현사.
(3) 松坡恪敏(1596~1675) : 해인사, 용연사.
(4) 紅藕善天(1611~1689) : 수타사, 용문사.
(5) 友雲眞熙(1610~1694) : 통도사, 용연사, 용천사, 표충사.
(6) 松巖性眞(1626~1699) : 구룡산, 보현사.
(7) 東雲慧遠(1700경 입적) : 통도사, 용연사.
(8) 柏庵性聰(1631~1700) : 송광사, 칠불사.
(9) 相峰淨源(1627~1709) : 동화사, 보살사, 용문사(양평), 용문사(예천).
(10) 雲巖秋鵬(1646~1710) : 대흥사, 징광사.
(11) 石室明眼(1651~1706) : 왕산사, 대원사.
(12) 月渚道安(1638~1715) : 보현사, 평 양, 해 남.
(13) 雪松演初(1676~1750) : 통도사, 운문사.
(14) 桂坡性能(?~1750이후) : 해인사, 화엄사.
(15) 影海若坦(1668~1754) : 통도사, 능가사, 송광사.
(16) 龍潭愷冠(1700~1762) : 감로사, 파근사, 실상사.
(17) 霜月璽葑(1687~1766) : 통도사, 오도산, 선암사, 대흥사.
(18) 雲坡尙彦(1710~1790) : 통도사, 오도산, 선암사, 대흥사.
(19) 粲淵瑞谷(1702~1768) : 수타사, 봉복사.
(20) 千峰泰屹(1710~1793) : 호국사, 월정사, 망월사.
(21) 葆月道佑(? ~1817?) : 송광사, 연곡사.
(22) 東峯旭日(1820~1858) : 건봉사, 대승사.

1) 淸虛休靜(1520~1604)

청허휴정이 1604년(선조 37) 1월 23일, 묘향산 圓寂庵에서 입적하자 다비를 하여 나온 영골 1편과 사리 3과를 보현사, 안심사, 대흥사 등에 부도를 세워 안치하고 영골 1편은 봉래산에 모시고 기도하자 神珠 數顆를 얻어 유점사 북쪽 백화암에 석종으로 봉안하였다.[7] 부도의 양식은 대흥사 부도는 부도군 내의 팔각원당형 부도와 유사한 양식이고, 백화암의 원구형 부도는 동일 부도군 내의 편양언기와 무경당 부도와 동일한 양식이다. 보현사 부도는 종형으로 역시 부도군내의 종형 부도와 유사한 양식으로 조영되었다.

백화암

대흥사

보현사

청허휴정

2) 靜觀一禪(1533~1608)

정관일선은 白霞禪雲에게 수학하고 청허휴정의 법을 이었다. 무주 백련사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분장하지 않고 백련사에 봉안하였다. 연꽃을 모각한 원형의 하대석에 약 2m의 원통형에 가까운 종형부도를 조영하였다. 탑신에 「靜觀堂 一禪塔」, 하대석에 「萬曆三十七年建」이라 음각하였다. 이는 1609(광해군 1)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

7) 李智冠, 「회양 표훈사 백화암 청허당 휴정대사비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朝鮮篇1, 伽山文庫, 1999, pp.231-232. 해남 대흥사 청허대사 비문에도 이와 같다.
정명호, 「청허당 휴정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佛教美術』 4, 동국대 박물관, 1979, pp.16-36.

3) 松雲惟政(1544~1610)

송운유정은 직지사 信默에게 출가하여 1561년(명종 16)에 승과에 합격하였다. 직지사 주지를 지내고 묘향산에 있던 청허휴정의 문하에 들어가 법을 이었다. 해인사 홍제암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頂珠 1顆를 홍제암에 봉안하였다.[8)]

사각형의 지대석에 원형으로 하대석을 높게 조각하고 그 위에 보주가 있는 종형 부도를 놓았다.

정관
백련사

송운
해인사

무경

취진
백화암

편양

4) 鞭羊彦機(1581~1644)

편양언기는 玄賓印英을 따라 수학하다가 청허휴정의 법을 이었다. 묘향산 내원암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정골사리와 은색사리 5과를 묘향산 보현사와 금강산 백화암에 봉안하였다. 백화암의 부도는 동일 부도군 내의 취진당과 무경당 부도와 유사 양식으로 조영되었다.[9)]

---

8) 李智冠, 「합천 해인사 사명대사석장비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朝鮮篇1, 伽山文庫, 1999, p.130.

9) 李智冠, 「회양 백화암 편양당 언기대사비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朝鮮篇1, 伽山文庫, 1999, p.365.
국립문화재연구소, 『北韓文化財解說集』 Ⅰ, 1997, p.135.

5) 逍遙太能(1562~1649)

소요태능은 장성 백양사에서 眞에게 출가하고 해인사에서 부휴선수에게 수학하였으며 묘향산에서 청허휴정에게 20여년간 배워 그의 법을 이었다. 지리산 연곡사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연곡사, 철원 보개산 심원사, 전주 모악산 금산사 등에 봉안하였다. 연곡사 부도는 팔각원당형으로 사역내에 있는 나말여초기의 부도를 모방하여 조성하였는데 탑신에 「逍遙大師之塔 順治六年庚寅」이라 음각하였다. 용추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 심원사는 원구형, 백양사는 打鍾을 위한 실제의 종과 같이 조성하였는데 모두 「逍遙堂」이라 부도명을 음각하였다.[10]

연곡사

용추사

심원사

백양사

소요태능

6) 楓潭義諶(1592~1665)

풍담의심은 性淳에게 출가하고 편양언기에게 법을 배웠다. 금강산 정양사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김포 문수사와 해남 대흥사에 봉안하였다. 부도의 양식을 보면 문수사의 부도는 팔각원구형으로 옥개석의 지붕선이 매우 높

문수사

대흥사

풍담의심

10) 成春慶,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20, 韓國文化史學會, pp.209-232.

게 처리되었다. 대흥사의 부도는 아무런 장식이 없는 종형으로 상륜에 보주만이 장식되었다.

7) 幻寂義天(1603~1690)

환적의천은 속리산 복천사에서 塵靜琢璘에게 수학하고 松溪性賢에게 경론을 배웠다.[11] 해인사 백련암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8곳에 나누어 분장하였다. 현재는 5곳에 부도가 남아 있다. 봉암사와 해인사 부도의 탑신부에 「幻寂堂智鏡之塔」이라 음각하였고 청평사, 덕주사 부도에는 기단 중대석에 「幻寂堂」이라 종서하였다. 양식을 보면 봉암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인데 옆의 산등성이에 있는 기화득통의 부도를 모방하였다. 해인사, 청평사, 덕주사는 육각, 팔각원구형으로 덕주사 부도는 상대석 등의 일부 부재가 결실되면서 변형된 듯하다. 용연사 부도는 종형이다.[12]

봉암사 해인사 청평사 덕주사 용연사

환적의천

8) 月渚道安(1638~1715)

월저도안은 풍담의심에게서 20여년간 수학하고 그의 법을 이었다. 묘향산 진불암에서

---

11) 金豊起, 「淸平寺 幻寂堂 浮屠에 대한 一考察」, 『江原文化硏究』 11,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2, pp.93-104.

12) 홍성익, 「朝鮮後期 幻寂堂의 八分舍利 浮屠에 관한 硏究」, 『博物館誌』 13,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pp.85-108.

입적하자 다비를 하여 나온 사리를 해남 대흥사에 봉안하였다. 부도의 양식은 청허휴정의 부도보다 약식화되었으나 동일 부도군에 있는 팔각원당형을 계승하였다.

대흥사
월저

2. 부휴선수계

부휴선수는 부용영관의 법을 이은 청허휴정과 도반이다. 조선후기에 들어 부휴계파를 형성해 17세기에는 청허계에 대응하는 문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3] 부휴계는 송광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휴계의 부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1) 浮休善修(1543~1615)

부휴선수는 지리산에 들어가 信明에게 출가하고 부용영관의 법을 이었다. 칠불암에서 입적하자 다비를 하여 나온 사리를 해인사 국일암, 하동 칠불암, 남원 백장암에 분장하였다. 해인사 국일암의 부도는 종형이고 송광사의 부도는 팔각원당형이다. 이들은 모두 동일 부도군 내에 조영된 부도와 친연성이 매우 강하다. 칠불암의 부도는 하대와 중대 그리고 상대를 놓은 종형부도이다.

송광사 해인사 칠불암 동화사 해인사
부휴선수 고한희언

13) 김용태, 「浮休系의 계파인식과 普照遺風」, 『보조사상』 25, 보조사상연구원, 2006, pp.315-359.
14) 박상현, 「조선후기 浮休系 石造浮屠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 孤閑熙彦(1561~1647)

고한희언은 칠보산 운주사에서 출가하고 덕유산으로 가서 부휴선수에게 3년간 수학하고 법을 이었다. 속리산에서 입적하자 다비를 하여 나온 사리를 해인사와 동화사에 분장하였다. 해인사 국일암의 석종형 부도는 스승인 부휴선수 부도와 유사하다. 동화사 부도는 원구형이다.

3) 碧巖覺性(1575~1660)

벽암각성은 화산암의 雪默에게 수학하고 부휴선수를 따라 전국을 유력하면서 수학하여 그의 법을 이었다. 화엄사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국일암, 화엄사 등에 분장하였다. 해인사 국일암에는 부휴선수 – 고한희언 – 벽암각성의 석종형 부도가 동에서 서로 조영되어 있다. 부도는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고 상륜에 보주만을 표현한 종형부도이다. 송광사의 부도는 난간을 돌린 하대석에 원구형의 탑신을 놓고 원당형의 옥개를 올렸으며 용두와 화려한 장식을 한 상륜을 얹었다. 화엄사의 부도는 용뉴 대신 보주를 장식한 것을 제외하고 유곽, 하대와 상대 등을 부조하여 실제의 범종과 유사한 형태로 조성되었다.

송광사

해인사

화엄사

벽암각성

4) 翠微守初(1590~1668)

취미수초는 霽月敬軒에게 출가하고 부휴선수가 각성에게 가르침을 부탁하여 각성의 지도를 받고 법을 이었다. 오봉산 삼장암에서 입적하자 다비를 하여 나온 사리를 중주 오봉산, 학성 설봉산, 승평 조계사에 분장하였다. 오봉산과 설봉산의 부도를 확인하지 못하여 양식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송광사에 있는 부도는 사각형의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다른 부도의 옥개석이 놓여 있으며 비교적 큰 보주를 얹은 종형부도이다.

5) 栢庵性聰(1631~1700)

백암성총은 鷲岩에게 출가하고 지리산으로 가서 취미수초에게 9년간 수학하고 법을 이었다. 쌍계사 신흥암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송광사에 봉안하였다. 연화문을 새긴 하대석에 종형부도로 조성하였다. 윗면에 복련을 모각하였으며 상륜에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6) 無用秀演(1651~1719)

무용수연은 송광사 惠寬에게 출가하고 慧空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송광사 은적암에서 백암성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송광사에서 입적하자 다비하여 나온 사리를 송광사에

송광사
취미

송광사
백암

송광사
무용

봉안하였다. 사각형의 지대석에 역시 사각형의 하대석을 놓고 상대석없이 중대석 역할을 하는 부재 위에 원구형의 탑신을 놓았다. 그리고 옥개석의 처마부분이 과도하게 위로 올라가는 옥개석과 상륜을 놓았다. 보조국사 지눌의 부도양식을 계승하되 부분적으로 약식화되었다.

이상으로 청허계와 부휴계의 부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팔각원당형, 원구형, 종형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조성되고 있으며 분포지역도 부휴계는 송광사와 화엄사를 중심으로 호남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나 청허계는 전국적인 분포상을 보이고 있으며 양식 또한 부휴계에 비해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Ⅲ. 浮屠群 別 석조부도의 특징

승려가 입적하고 나온 사리를 부도라는 석조 조영물에 봉안하는 것은 신라시대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가의 장례법이지만 부도를 조영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나말여초기에는 선승에 한해 왕실의 명에 의해 조성되고 고려 전기에 들어 교종계 승려이면서 선종을 수용했던 탄문 이후 교종계열 승려들도 부도가 조영되었다. 조선후기에 와서는 이전시기와 달리 많은 부도가 건립되고 있다.[15] 전국 전수조사가 미진한 현재적 시점에서 전국 사찰의 부도군에 대한 성격검토는 불가능하겠지만 대표적인 특정 사찰의 부도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그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5)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우선 신라말부터 조선전기까지의 부도 보다는 규모면에서 작아지고 문양이나 부분적인 양식들이 약식화되어 재정적으로 부담이 적게 들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군들의 역할, 승려와 사대부간의 詩文 교류 등으로 인하여 朝廷이나 사대부들이 불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 해남 대흥사

대흥사 부도군

해남 대흥사는 보현사에서 입적한 청허휴정의 衣鉢이 전해진 사찰로서 조선후기에 명찰로 각광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하여 조선후기에는 청허계의 13대종사[16]와 13대 강사[17]가 배출되는 등 많은 고승들이 활약하였고 사찰 입구에는 56기의 부도가 건립되었다.[18]

16) ① 楓潭義諶(1592~1665) ② 醉如三愚(1622~1684) ③ 月渚道安(1638~1715) ④ 華嶽文信 (1629~1707) ⑤ 雪巖秋鵬(1651~1706) ⑥ 喚惺志安(1664~1729) ⑦ 碧霞大愚(1676~1763) ⑧ 雪峯懷淨(1678~1738) ⑨ 霜月璽封(1687~1767) ⑩ 虎巖體淨(1687~1748) ⑪ 涵月海源(1691~1770) ⑫ 蓮潭有一(1720~1799) ⑬ 草衣意恂(1786~1866).

17) ① 萬化圓悟(1694~1758) ② 燕海廣悅(? ~ ?) ③ 靈谷永愚(1638~1715) ④ 懶庵勝濟(1629~1707) ⑤ 影波聖奎(1651~1706) ⑥ 雲潭鼎馹(1678~1738) ⑦ 退庵泰瓘(1687~1767) ⑧ 碧潭幸仁(1687~1748) ⑨ 錦洲福慧(1691~1770) ⑩ 玩虎尹佑(1758~1826) ⑪ 朗巖示演(1789~1866) ⑫ 兒庵惠藏(1772~1811) ⑬ 梵海覺岸(1820~1896).

18) 李長漢,「海南 大興寺의 石造浮屠群 考察」,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대흥사에 건립된 부도는 다음과 같다.
연파. 운암. 호암. 설봉. 환성. 화악. 풍담. 무염. 청허. 청련. 벽해. 연해. 영곡. 진봉. 응성. 백련. 연담.

부도의 양식들은 크게 팔각원당형, 원구형, 종형으로 구분되는데 청허당 부도와 같이 지대석, 중대석, 상대석을 갖춘 기단부와 탑신이 팔각을 이루고 옥개석 역시 팔각으로 구성된 팔각원당형 부도는 몇 기 되지 않고 응성당 부도와 같이 기단부와 원구형의 탑신, 8각 내지 6각의 옥개석으로 구성한 부도가 주류를 이룬다. 탑신이 원구형 부도가 22기로 부도군 내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탑신이 다각인 부도가 12기, 종형 22기이다.

환성당 응성당 백련당 범해당 연해당

대흥사 부도의 대표적 양식 예

이들 부도 중에서 특징적인 면은 대부분 백련당이나 환성당 부도와 같이 기단부의 하대석이 생략되고 있으며 지대석이 방형 또는 자연석을 거칠게 치석하는 수법이 보이고 있다. 종형부도는 대부분 지대석 위에 종형을 놓아 단순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연해당 부도와 같이 하대석이 생략된 기단부가 있는 부도들도 조영되었다. 또한 옥개석이 조선시대 민묘에 건립되는 묘비의 비갓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예가 상당수 있으며 미황사보다는 약하지만 옥개석의 처마선이 과장되게 표현되었다.

정암. 지월. 만화. 현해. 초의. 백화. 중봉. 양악. 은암. 정월. 구암. 무송. 허백. 월저. 설암. 월파. 의암. 상월. 명진. 완호 응진. 용곡. 백설. 영송. 청우. 범해. 성주. 낙서. 호암. 벽허. 허정. 포룡. 원응. 경허. 도암. 취운. 일명 4기.

2. 해남 미황사

미황사 부도군

미황사 부도군에는 총 27기가 조영되었는데 대흥사 부도군과 같이 미황사 부도군 역시 몇가지 유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탑신이 원구형 부도가 15기로 부도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탑신이 사각인 부도가 10기, 종형 1기, 옥개석이 없는 부도가 1기이다.[19]

미황사 부도군에서 특징적인 면모는 옥개석이 두텁고 처마선 아래와 윗선이 모두 위로 과장되게 치우치게 조각되었다. 부도명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탑신에 음각하였는데 장방형 또는 위패형으로 주위를 음각하였다. 대흥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대석이 생략된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19) 金先子,「朝鮮時代 後期 海南 美黃寺의 石造浮屠 硏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춘규,「美黃寺 浮屠」,『불교문화연구』5,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5, pp.109-132.
최태선,「조선시대 부도의 일유형」,『논문집』9, 중앙승가대학, 2001, pp.133-160.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미황사 부도군 실측조사보고서』, 2001.
미황사에 건립된 부도는 다음과 같다.
벽하. 연담. 영월. 송암. 정암. 완해. 미봉. 정연. 붕명. 죽암. 백월. 송월. 오봉. 이봉. 영허. 응화. 설월. 사봉. 혼허. 응운. 은곡. 천연. 감파. 고압. 창암. 영파. 옥암. 부재 1.

봉명당

창암당

설봉당

미황사 부도의 대표적 양식 예

3. 양산 통도사

통도사 부도군

통도사의 부도군은『通度寺浮屠圓履跡中興事蹟記』에 의하면 1993년 6월부터 동년 8월까지 사역에 흩어져 있던 부도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전된 부도는 모두 45기이다. 이를 몇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종형은 탑신 아래 별석 또는 기단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탑신이 원구형인 경우와 다각인 경우이다. 원구형 부도

는 12기이고 종형은 29기, 탑신이 사각인 부도는 4기이다.[20]

통도사 부도군에서 팔각원당형 부도가 1기도 확인되지 않고, 탑신이 사각 또는 원구형인 경우에 장식이 약식화된 상륜부가 매우 높게 처리되었으며 기단부가 세장하여 부도의 전체적인 높이가 고준해 보인다. 현재 통도사 부도군내에 있는 부도 중에서 동운당, 우운당 등 분사리 부도가 확인되고 있다. 전수조사가 진행되면 분사리 부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송월당 동운당 천봉당 낙운당 연파당

통도사 부도의 대표적 양식 예

4. 영변 안심사와 회양 백화암

안심사와 백화암은 북한지역에 있는 사찰의 부도군이다. 최근 북한 방문단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안심사와 백화암의 부도군에 몇기의 부도가 조영되었는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두 부도군에서 보여지는 부도 양식의 특징은 확연히

20) 朴英九,「梁山 通度寺의 石造浮屠 硏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엄기표,「通度寺의 朝鮮後期 石造浮屠 硏究」,『불교미술사학』제6집, 불교미술사학회, 2008, pp. 187-224.
통도사에 건립된 부도는 아래와 같다.
청신녀 동허. 처사 연화당 묘성. 긍파. 취연. 화곡. 연암. 신적. 신암. 묘봉. 송월. 화월. 천봉. 정암. 영한. 정성. 계영. 화봉. 청화. 영월. 무영. 보운. 영서. 회진. 동운. 무멸. 양진. 연파. 능암. 응암. 낙운. 우운. 설송. 한계. 용파. 서운. 구룡. 일명 9기.

나타나서 부도 양식사 연구에 중요한 부도군이다. 즉, 안심사 부도군에는 별다른 장식없이 보주만을 조각한 종형부도가 대부분이고 백화암의 부도군은 지대석 위에 하대, 중대, 상대가 둔중하게 조각되었고 탑신부는 원구형으로 폭에 비해 높이가 낮게 마련된 부도가 대부분이다. 옥개석의 내림마루는 욱은지붕으로 비교적 길고 둔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륜부에는 약식화된 보주만이 표현되었다. 백화암의 부도군 역시 몇 기의 종형부도가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팔각원당형이 조영되었다.

평안북도 안심사 부도군

강원도 백화암 부도군

Ⅳ. 석조부도의 또 다른 일례-재가자 석조부도

조선후기의 석조부도는 조선전기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외형적인 양식에서 약식화된 원구형 부도와 종형 부도가 주류를 이루면서 규모면에서 작아진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후기 들어서 전기와 확연히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재가자의 부도가 건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스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주체세력에서 일반 재가자도 화장을 하면서 그 유체 또는 사리를 석조부도라는 형식을 빌려 장례를 치른 풍습이 생겨나고 있다. 물론 조선전기에 조성되는 부도 2기가 전하고 있으나 후기에 들어서는 보다 활발한 조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부도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제작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고 조선후기에 들어 재가자들이 사찰에 기여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후기에 오면 재가자가 사찰에 토지를 기부하거나 사찰 중창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공덕비를 세우는 예가 있는데 이도 재가자를 승려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바와 같이 공덕이 있을 경우 부도를 건립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글에서는 몇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이었는지의 문제인가와 건립되는 양식의 주류는 어떠한지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강원지역

1) 고성 건봉사

고성 건봉사는 강원도 동해안의 중북부지역을 대표하는 거찰이었으나 한국전쟁기에 불이문만 남고 전소되어 사세가 급속히 기울었다. 현재도 사역내에는 수많은 축대와 초석들이 남아 있으며, 4개의 홍예교가 있다.

1990년 이전에는 부도가 3곳에 흩어져 있었으나 1990년 중반경에 가장 많은 부도가

있는 현재의 부도전으로 이전하였다. 부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44기이고 부도재는 약 10여기이다. 대부분 석종형 부도이며 재가자의 부도는 4기로 원구형 탑신에 옥개석을 얹은 형태와 종형이다. 2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사 김계화는 건봉사지에 전하는데 인제 서북면 용산리 사람으로 사리를 토해 내자 스님의 권고로 출가하였다고 한다. 이 때 나온 사리를 봉안한 것이 이 부도이다.[21] 지대석과 하대석이 같은 돌이고 탑신석과 옥개석이 하나의 돌로 조성하였다. 옥개석은 탑신석에 비해 작게 조영하였다. 탑신에 전면에 「處士/金桂/花舍/利塔」이라고 새겨 놓았다.[22]

처사 임행복의 석조부도는 화려한 연판을 돌린 2단의 하대석에 보주를 놓은 세장한 종형 부도이다. 하대석은 다른 부도의 부재이다. 탑신에 전면에 「處士/林幸復/舍利塔」이라고 새겨 놓았다.[23] 위의 2기는 모두 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남성 재가자로 추정된다.

건봉사에는 이외에도 법해당 부도와 청신대범화 부도가 있다. 법해당 부도는 탑신 전면에 「法海堂崔/氏生舍利之塔」이라고 새겨 놓았다.[24] 청신대범화 석조부도는 연봉이 큰 형태로 탑신의 전면에 「淸信大梵華」라고 새겨 놓았다.[25] 법해당 부도는 당호가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성이고, 대범화는 여성 재가자로 추정된다.

2) 속초 신흥사

신흥사는 속초시 설악동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이다. 신흥사의 부도군에는 14기 부도와 몇기의 부재들이 보존되어 있다. 대원당 부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종형에 가까운 형태로 조영되었다. 이 중에서 재가자의 부도는 1기이다.

---

21) 韓國學文獻硏究所 編,『乾鳳寺本末事蹟』, 亞細亞文化社, 1977, p.45. 이 자료를 보았을 때 김계화는 분명 재가자이다.

22) 강원도,『江原道浮屠調査報告書』, 1990, p.115.
江原文化財硏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p.193.

23) 江原文化財硏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p.200.

24) 강원도,『江原道浮屠調査報告書』, 1990, p.111.
江原文化財硏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p.191.

25) 강원도,『江原道浮屠調査報告書』, 1990, p.113.
江原文化財硏究所,『文化遺蹟分布地圖』高城郡, 2005, p.193.

해암거사 부도는 방형에 가까운 지대석에 돋을 새김을 한 원형의 탑신받침을 놓고 위에 종형부도를 조영하였다. 상륜은 작은 보주를 얹은 형태이다. 탑신에 전면에 「海岩居士塔」이라고 새겨 놓았다.[26]

3) 양양 명주사

명주사는 양양군 어성전리에 있는 사찰이다. 건봉사와 같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부도를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부도군에 조선시대 석조부도 13기가 있다. 탑신석에 비하여 옥개석이 과장되게 보일 정도로 처마선이 넓게 조영되었다. 재가자의 석조부도는 1기로 종형이다. 탑신의 전면에 「淸信居士尙淨塔」이라고 새겨 놓은 것으로 볼 때 남성 재가자로 판단된다.[27]

처사 김계화 건봉사 | 처사 임행복 건봉사 | 해암거사 신흥사 | 거사 상정 명주사

4) 강릉 보현사

보현사는 강릉시 성산리에 있는 사찰로 부도군은 총 20기로 조성되어 있다. 19기는 종형이고 1기는 종형부도에 옥개석이 얹은 형태이다. 이중에서 재가자의 부도는 1기로

---

26) 강원도, 『江原道浮屠調査報告書』, 1990, p.30.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 강원도, 문화재청, 2002, p.23.
27) 강원도, 『江原道浮屠調査報告書』, 1990, p.146.

탑신에 「淸信居士雲月堂彌淨大師塔」이라 음각하였다. 다른 재가자의 부도는 居士 또는 處士, ▽氏, 淸信 등 속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용어들이 부도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도는 예외적으로 居士와 大師라는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단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강제로 출가승에게 帶妻하도록했던 영향으로 대처라는 의미의 거사와 승려라는 대사의 용어가 동시에 쓰이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 볼 수 있으나 근거는 전혀 없다.

5) 춘천 흥국사

흥국사는 춘천시 덕두원리의 삼악산성 내에 위치한 사찰이다. 훼손이 심한 3층석탑과 명문이 없는 종형 부도 1기가 경내에 남아 있다. 부도명이 없어 주인공을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흥국사지에 「舍堂金氏塔 位置入口盤石上」이라고 하였다. 흥국사에는 현재 부도 1기만이 현존하고 흥국사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씨라고 부도명을 지칭한 것은 재가자의 부도로 판단되며 현존하는 부도의 높이가 약 62㎝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출가승이 아닌 재가자의 부도로 보여진다. 특히 흥국사지에는 1897년 化主 金基煥이 삼악사 옛터를 개창하고 흥국사라 명했다는 기록을 토대로 한다면 김씨탑은 김기환이 입적하자 그의 사리나 유골을 수습하여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28]

6) 영월 법흥사

법흥사는 영월군 법흥리에 있는 사찰로 사자산문의 본산이고 경내에는 개산조인 징효절중의 부도와 비가 남아 있다. 법흥사에는 징효부도 외에 사찰 북쪽의 적멸보궁 뒤편에 사리탑이라고 알려진 팔각원당형 부도 1기, 사찰 동쪽의 흥녕선원지에 종형부도 1기가 있다. 재가자의 부도는 징효 부도의 근처에 종형부도로 조영되었는데 마모가 심하여 판독이 어려우나 탑신에 「處士幻心」이라고 음각하였다. 부도명에 처사라 한 것은 재가자 중에서 남자를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8)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 1977, pp.824-825.

거사 필정
보현사

김씨
흥국사

처사 환심
법흥사

처사 축심
백담사

5) 인제 백담사

백담사는 인제군 용대리에 있는 사찰이다. 백담사에는 蓮浦堂의 종형부도 1기가 있고 재가자의 부도로 보이는 종형 부도가 있다. 탑신의 중아부가 부른 타원형의 부도로 상륜에 작은 보루를 장식하였다. 탑신에 「處士築尋塔」이라 음각하였는데 처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가자의 부도로 추정된다.[29)]

2. 충남지역

1) 금산 신안사

신안사는 금산군 신안리에 있는 사찰이다. 부도군에는 총5기의 부도가 있는데 반원형의 앙화를 모각한 연화문 하대석을 놓고 위에 종형부도를 얹었다. 이 중에서 재가자의 부도만이 연화문 하대석이 생략되었다. 탑신에 「淸信菩人之塔」이라 음각하였다. 청신이란 용어로 볼 때 재가자 중에서 여성의 부도로 추정된다.

29)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사찰문화재』, 강원도, 문화재청, 2002, p.385.

2) 서산 천장사

천장사는 충남 서산시 장요리에 있는 사찰로 부도는 배씨 부도 1기만이 전한다. 지대석 위에 장타원형의 탑신이 있고 조선시대 묘비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옥개석을 놓았다. 탑신에는 「淸信女裵氏善住行生舍利浮屠」라 음각하였다. 부도명으로 볼 때 성이 배씨인 여성의 부도로 판단된다.

청신보인
신안사

배씨
천장사

3. 전북지역

1) 고창 문수사

문수사는 전북 고창군 은사리에 있는 사찰로 총 10기의 부도가 있다. 원구형이 4기이고 6기는 진주강씨부도와 같이 팔각원당형이다. 기단부에 연화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하대석과 중대석 상대석으로 구성된 기단부와 팔각의 탑신부 그리고 역시 팔각의 옥개석을 놓은 형식이다. 재가자의 부도는 2기이다. 부도명은 「晋州姜

진주강씨
문수사

송청정심

처사 김준영
금산사

氏塔」,「宋淸淨心塔」으로 1기는 진주강씨의 부도이고 1기는 송씨의 부도이다. 부도명에서 법호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재가자인 부도로 판단된다.

2) 김제 금산사

금산사는 김제시 금산리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이다. 부도군에는 11기의 부도와 부도 하대석만 남은 부도재 1기가 있다. 사각형의 하대석에 장타원형의 탑신부를 갖추고 사각형의 옥개석을 놓았다. 탑신에 「處士 金俊永」이라 음각한 것으로 볼 때 남성의 재가자의 부도로 판단된다.

3) 광주광역시 증심사

증심사는 광주광역시 운림동 무등산에 있는 사찰로 부도군에 6기가 전한다. 종형과 원구형이 각1기와 2기이고 나머지 3기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층석탑형이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건립된 부도 탑신에 「曺氏淨行華化塔」·「康津崔氏之塔」·「大德華安魂塔」이라 부도명을 새겨 놓았다. 이로 보았을 때 조씨와 대덕화의 부도는 여성으로 판단된다.[30]

조씨

강진최씨

대덕화

증심사

30) 증심사에는 부도외에 청신녀정토행김장성선행비, 청신녀묘화광서우죽기념비, 청신녀정월광이희춘영생비, 청신녀청정행구룡수성비, 청신녀조씨정행화공덕비, 청신녀상락행김성배귀진비 등이 있다. 대체로 1920년을 전후한 시기에 건립된 공덕비이다. 이 비문들을 볼 때 이 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증심사가 대대적인 불사가 있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본문에서 본 3인의 재가자 부도 역시 증심사의 불사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전남지역

1) 구례 천은사

천은사는 구례군 방광리에 있는 사찰로 부도군에는 10기의 부도가 있다. 종형부도가 4기이고 나머지는 종형부도에 옥개석을 얹은 양식을 취하고 있다. 재가자의 부도는 2기로 탑신에 「玄空處士朴▽▽塔」이라 음각하였다. 속성은 박씨이고 법명이 현공인 남성 재가자의 부도로 판단된다. 또하나의 부도는 「長城徐氏舍利塔」이라 음각하였는데 이는 장성서씨의 부도로 역시 속성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재가자의 부도로 판단된다.

현공처사

장성서씨

천은사

4. 경남지역

1) 양산 통도사

통도사는 양산군 지산리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이다. 부도군에는 50여기의 부도가 건립되어 있다. 종형이 약 30여기로 가장 많고 탑신이 원구형, 사각형 등이 있으나 원구형이 주류이다. 재가자의 부도는 3기가 있는데 1기는 「淸信女東虛堂法明塔」이다. 그런데 청신녀라하면서 동허당이란 당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가자이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玉山金氏」라 음각한 부도가 있는데 속성만을 부도명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여성 재가자로 판단된다. 또 「處士蓮花堂妙成大師」의 부도인데 처사라 하면서도 연화당이란 당호를 사용하고 묘성대사라는 스님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처사 묘성

청신녀 법명
통도사

옥산김씨

강릉 보현사의 「淸信居士雲月堂彌淨大師」에서도 동일한 예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일제강점기의 대처승과 관련 있는 것인지의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양식은 보면 2기는 종형이고 1기는 원형의 기단부에 사각형의 탑신과 옥개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으로 조사된 37기 중에서 23기의 재가자 부도를 살펴보았다. 재가자의 부도가 갖는 특이한 양식은 발견할 수 없었고 조선후기에 조성되는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되 전체적인 형식은 부도군내에 있는 다른 부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전국에 산재한 재가자의 부도를 전수조사하여 건립시기, 건립자의 성격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Ⅴ. 맺음말

이상으로 조선후기 석조부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간 조선후기 석조부도에 관한

연구는 나말여초기 집중되던 경향이 최근에는 조선전기까지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조선후기는 몇 편의 연구논문만이 발표되었을 뿐 학계에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조선후기 석조부도의 대체적인 면만을 살펴보는데 그쳤다. 청허휴정과 부휴선수의 법맥을 따르는 법손들의 부도와 이들 중에서 분사리를 한 예를 추출하여 살펴보았다. 현재로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청허계와 부휴계는 특별한 법맥의 인식 속에서 부도를 조영한 것이 아니고 부도가 소재한 부도군 내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론 부휴계의 경우 송광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조지눌이후의 부도와 친연성이 보이고 있으나 송광사를 벗어난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의 경우를 보면 부휴계 역시 법맥에 의한 부도의 외형적 양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으로 판단되었다. 분사리 부도의 조영에 있어서 주인공별 차이나 양식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추출할 특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문제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왜 분사리 부도가 유행을 하였는지, 분사리 부도를 조영한 승려의 예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분명 분사리를 한 승려와 하지 않은 승려는 원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한 몇 개의 사찰에 조영된 부도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해남 대흥사와 미황사, 양산 통도사, 북한지역의 안심사와 백화암을 그 예로 들었다. 대흥사와 미황사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때문인지 원구형 부도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옥개석의 반전하는 정도와 기단부에서 중대석의 체감율 등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도사의 경우에는 기단부가 마련된 종형 부도는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도가 많이 조영되고 있으며 안심사와 백화암은 부도군 내에서 서로 양식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주면서 조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가자 부도의 경우 그동안 재가자의 부도에 대하여는 개체별로 언급되었지만 전국적인 모습 속에서의 재가자 부도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여기가 안되는 수효가 조사되었지만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재가자의 부도가 조사될 것으로 생각된다. 고성 건봉사의 처사 김계화는 재가자가 확실하다. 그러나 거사, 처사 명의 부도와 대범화, 청정심, 대덕화 등 출가승이 재가 여성에게 주는 법명과 유사한 부도

명이 과연 재가자의 부도인가라는 문제에서 조금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11년 사찰령이 실행되고 전국의 사찰이 본말사제도에 편입되면서 출가승이 아니라 대처승 문제가 새롭게 대두된다. 이 문제 역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부도명에 의한 재가자와 대처승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朝鮮後期 楓潭大師의 分舍利 浮屠와 塔碑

嚴 基 杓*

Ⅰ. 序 論
Ⅱ. 楓潭大師의 生涯와 行蹟
Ⅲ.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의 現況과 建立 時期
Ⅳ.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의 美術史的 意義
Ⅴ. 結 論

Ⅰ. 序 論

조선은 건국되면서 유교국가로서의 정책적 명분을 표방하여 전반적으로 불교계가 위축되었지만 실제로는 불교가 신행되고 있었던 현실로 인하여 外儒內佛, 公儒私佛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전기와 후기로 구분되는데, 전기와 후기의 불교계 양상이 많이 달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前期는 지배세력이 불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성리학적 유교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숭유억불정책 기조에 따라 불교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 그러나 특정 대군과

* 단국대학교 교수/석주선기념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李逢春, 「조선전기 崇佛主와 흥불사업」, 『佛敎學報』 제38집, 불교문화연구원, 2001, p.45.

공주 등을 비롯한 왕실의 신불 경향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왕실과 관련된 특정 사찰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佛事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後期는 전기와 달리 불교에 대한 인식과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불교가 사회의 중심적인 종교로 자리잡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불사가 크게 성행하고, 지배세력과 승려들과의 교류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된다. 동시에 전기와는 달리 승려들에 대한 인식과 예우도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승려들의 사후 기념적인 조형물로 세워진 부도의 건립이 크게 성행하게 된다.[2] 그리고 한 승려에 대하여 하나의 사찰에 하나의 부도와 탑비만 건립되던 전통에서 특정 승려의 경우 分舍利하여 여러 사찰에 수기의 부도와 탑비를 건립하는 경향으로 변화된다. 특히 불교계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법맥을 잇거나 높은 법계를 역임했던 승려의 경우 분사리에 의한 부도와 탑비의 건립은 새로운 전통으로 정립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분사리에 의한 부도와 탑비의 건립은 고려말기부터 나타나 조선전기에도 특정 승려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지속되었지만 본격적인 성행은 조선후기부터 나타난 양상이었다.[3]

이중에서 楓潭大師 義諶(1592~1665.03.08)은 太古 普愚((1301.09.21~1382.12.24)에서 幻庵 混修(1320~1392)로 이어지는 法系를 잇는 승려로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과 활동을 했다. 풍담대사는 관련 기록에 의하면 正陽寺에서 입적하였으며, 입적 이후 그의 문도들에 의하여 深源寺, 文殊寺, 大芚寺, 普賢寺, 表訓寺 등에 부도와 탑비가 건립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록을 통하여 풍담대사의 생애와 행적을 정리하고, 분사리에 의하여 건립된 부도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술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시론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鄭永鎬, 『부도』, 대원사, 1993.
鄭永鎬, 「韓國의 石造浮屠美術」, 『韓國의 農耕文化』 5집, 京畿大學校博物館, 1996.
정영호, 『한국의 석조미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3)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학연문화사, 2002.
成春慶, 「조선시대 소요대사부도에 대한 고찰」, 『文化史學』 第20號, 韓國文化史學會, 2003.
嚴基杓, 「朝鮮時代 分舍利에 의한 石造浮屠의 建立」, 『전통문화논총』 3호, 한국전통문화학교, 2005.
홍성익, 「江原道 壽陀寺 鳳腹寺 瑞谷堂 二分舍利 浮屠에 관한 연구」, 『江原文化硏究』 제25집,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6.
홍성익, 「朝鮮後期 幻寂堂의 八分舍利 浮屠에 관한 硏究」, 『博物館誌』 제13호,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2006.

Ⅱ. 楓潭大師의 生涯와 行蹟

楓潭大師 義諶의 生涯와 行蹟은 妙香山 普賢寺 「楓潭大師碑」,[4] 금강산 白華庵의 「楓潭堂大師碑銘」, 김포 文殊寺의 「楓潭大師碑」 등에[5]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梵海 覺岸(1820~1896)의 『東師列傳』[6]에도 전재되어 있으며, 采永이 集錄한 『海東佛祖源流』[7]에는 大師의 法脈과 門派가 자세히 나와 있다. 이외에도 『大芚寺誌』[8] 등에 살아생전 행적과 관련된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楓潭大師의 生涯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그는 1592년(선조 25) 경기도 通津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鄭氏가 꿈에 명주를 품은 꿈을 꾸고 잉태하였다고 한다. 그의 속성은 文化 柳氏이며, 法名은 義諶이었다. 그는 14세에 부친 몰래 묘향산에 들어가 性淳長老에게 출가하였으며, 圓徹스님에게 戒를 받았고 서산대사의 직계 제자인 鞭羊스님으로부터 法을 전수받았다. 義諶은 법을 받은 후 전국을 유람하며 當代의 善知識을 두루 참방하고 금강산으로 돌아온다. 이후 스승을 좇아 불경 공부에 원력을 다하였는데, 특히 『圓覺經』과 『華嚴經』에 능통하였다. 그는 해남 大興寺에 주석하며 華嚴宗을 진흥시켜 海東華嚴宗의 中興祖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9] 그리고 講說에 통달하였으며,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자들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 그러다가

---

4) 현재 북한 지역으로 碑의 현존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碑文의 탑영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서실(소장 번호 : 매 1723-30, 규격 180×80cm)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碑文이 『朝鮮金石總覽』에도 실려 있다.

5) 「文殊寺 楓潭大師碑文」은 다음과 같은 책 등에 실려 있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 下, 1919(亞細亞文化社, 1976).
『傳燈寺本末寺誌』(亞細亞文化社, 1978).
京畿道, 「文殊寺楓潭大師碑」, 『京畿金石大觀』, 1982.
智冠 編, 「通津 文殊寺 楓潭堂 義諶大師碑」, 『韓國高僧碑文叢集』 朝鮮初・近現代, 2000.
이외에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번호 732)과 규장각(소장 번호 15157)에 탑영이 소장되어 있다.

6) 梵海, 『東師列傳』 第1 卷2, 楓潭宗師傳.

7) 韓國佛教全書編纂委員 編, 『韓國佛教全書』 10冊, 東國大學校 出版部, 1994.

8)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大芚寺誌』, 韓國寺志叢書 6집, 亞細亞文化社, 1983.

9) 韓國佛教研究院, 『大興寺』, 韓國의 寺刹 10, 一志社, 1982, p.36.

義諶은 금강산 正陽寺에서 1665년(현종 6) 微疾을 보이게 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偈頌을 남기고 같은 해 3월 8일 입적하였다. 義諶은 입적 당시 俗臘이 74세, 法臘은 60세였다.[10]

조선시대의 法脈은[11] 鞭羊堂 彦機(1581~1644)가 지은 「鍾峯影堂記」에서 비롯되었다. 鍾峯大師는 四溟大師 惟政(1544.10.17~1610.08.26)을 지칭하는데, 유정의 제자였던 松月堂 應祥和尙(1572~1645)이 유정과 법형제였던 鞭羊堂 彦機에게 記文을 청하여 지은 것이 「鍾峯影堂記」이다. 여기에 처음으로 法統이 제시되었는데, 중국의 石屋 淸珙 → 太古和尙 → 幻庵 混修 → 龜谷 覺雲 → 登階 正心 → 碧松 智嚴 → 芙蓉 靈觀 → 西山 淸虛로 이어지고 있다.[12] 淸虛 休靜(1520~1604)의 법맥은 鞭羊派, 四溟派, 逍遙派, 靜觀派의 4대 문파로 분기하여 계승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풍담대사는 이중에서 鞭羊派의 제자인 幻寂堂 義天(1603~1690)과 함께 주요 法脈을 이었던 승려였다. 李裕元(1814~1888)이 찬한 「華潭大師碑」에도 풍담대사는 태고화상을 잇는 제자들 중에서 서산대사 이후 뛰어난 승려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환적당 의천은 살아생전 많은 공적을 이룬 승려로 풍담대사보다 25년 정도 후에 입적하였다. 환적당 의천의 문도들은 1690년 해인사에서 스승이 입적하자 정골과 사리를 분사리하여 총 8기의 부도가 전국 주요 사찰에 건립되었다.

---

10) 梵海, 『東師列傳』 第1 卷2, 楓潭宗師傳.
京畿道, 「文殊寺楓潭大師碑」, 『京畿金石大觀』, 1982.

11) 조선후기 불교계는 法脈이 크게 2개의 주류로 형성되었다.
1. 淸虛 休靜(1520.03~1604.01) → 鞭羊派, 四溟派, 逍遙派, 靜觀派의 4대 문파로 분기
2. 浮休 善修(1543.02~1615.11.01) → 碧巖 覺性(1575~1660)
그리고 『東師列傳』, 化運禪師조에는 다음과 같이 法系가 전재되어 있다.
淸虛 休靜 – 逍遙 太能 – 海運 敬悅 – 酔如 三愚 – 華岳 文信 – 雪峯 懷淨 – 霜月 璽筍 – 晶庵 卽圓 – 兒庵 惠藏 – 枕蛟 法訓 – 化運 銀哲

12) 『淸虛堂集』 卷4.

Ⅲ.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의 現況과 建立 時期

풍담대사가 1665년 3월 8일 입적하자 제자들은 조문 기간이 지난 후 유체를 다비하여 靈骨 1片과 舍利 5顆를 수습하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습한 靈骨과 舍利를 分舍利하여 풍담대사와 인연이 깊었던 사찰에 부도를 세워 安藏하고, 碑를 세운다. 풍담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에 의하면 금강산 表訓寺, 묘향산 普賢寺, 연천 深源寺, 해남 大興寺, 김포 文殊寺 등에 舍利 1과씩을 안장한 부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필자는 묘향산 보현사에[13] 건립된 풍담대사의 부도와 탑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였다.[14] 따라서 현재 관련 자료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금강산 表訓寺, 연천 深源寺, 해남 大興寺, 김포 文殊寺를 중심으로 부도와 탑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表訓寺 白華庵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

금강산 장안사에서 표훈사로 올라가는 중간에는 白華庵址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인 1932년 月峰 桂旬의 기행문에 의하면 그곳에는 청허선사 등 고승들의 진영을 모신 酬忠影閣과 승려들의 초막집 몇 채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니 청허선사와 풍담선사의 석비가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15] 그리고 「表訓寺誌」의 石物條 白華庵 항목에 의하면 백화암에는 淸虛堂碑, 虛白堂碑, 鞭羊堂碑, 楓潭堂碑를 비롯하여 淸虛堂浮屠, 楓潭堂浮屠, 鞭羊堂浮屠, 雪峯堂浮屠, 霽月堂浮屠, 醉眞堂浮屠, 虛白堂浮屠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16] 이러

13)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는 동부도군, 서부도군, 남부도군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전한다. 寧邊郡 編, 『名勝之寧邊』, 1929.

14) 원래는 묘향산 보현사에 건립된 풍담대사의 부도와 비에 대한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 원고를 작성하려 했으나, 언제 가능할지 몰라 현재 상태로 원고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15) 月峰 桂旬, 『金剛山觀賞錄』, 1932.

16)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表訓寺誌」, 『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 韓國寺志叢書 3집, 亞細亞文化社, 1977, pp.452-453.

한 것으로 보아 백화암에는 조선후기 유력한 고승들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백화암지 뒤편에는 부도 7基와 석비 3基가 같은 공간에 세워져 있는데, 부도의 주인공은 西山大師, 濟月堂, 醉眞堂, 鞭羊堂, 虛白堂, 楓潭堂, 雪峰堂인 것으로 확인되었다.[17] 부도는 원구형 양식 5기, 석종형 양식 2기가 건립되어 있다. 그리고 귀부가 마련된 3기의 탑비가 세워져 있다. 부도의 주인공은 西山大師(1520~1604년)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인 濟月堂 敬軒(1544~1633년), 醉眞堂, 鞭羊堂 彦機(1581~1644년), 虛白堂(1593~1661년), 楓潭堂(1592~1665년)이다. 그리고 雪峰堂(1678~1738년)의 부도가 함께 건립되어 있다.

금강산 백화암 부도군(1912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아름다운 금강산』, 1999에서 인용)

백화암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1912년경)
(국립중앙박물관, 『유리원판 아름다운 금강산』, 1999에서 인용)

금강산 백화암 부도군

백화암 풍담대사 부도(중앙)와 탑비(향우)

17) 유홍준,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하, 중앙M&B, 2001, pp.271-272.

이중에서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는 부도군 앞쪽에 세워져 있으며, 향좌측 바로 옆에 설봉당 부도가 위치하고 있다. 서산대사 부도와 가까이 건립되어 있는 부도들은 원구형 양식이 적용되었는데, 풍담당과 설봉당의 부도는 석종형 양식이 채용되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풍담당 부도는 설봉당 부도와 함께 석종형으로 유사한 치석 수법과 양식을 보이고 있다. 풍담당 부도는 장대석을 마련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후 그 안에 사각형 대석을 마련하였다. 대석 상면에는 원형으로 연화문을 새겨 그 위에 석종이 올려지도록 했다. 연화문은 낮게 마련하여 석종형 탑신의 괴임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석종은 하부의 지름이 넓고 상부의 지름은 좁은 형태로 치석되었는데, 하부에 동종의 하대처럼 일정한 높이로 구획하여 그 안에 연주문을 장식하였다. 석종 상부는 대형 연화문이 뒤집혀진 상태로 석종을 덮고 있는 형상으로 볼륨감있게 조각되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연주문이 장식된 낮은 받침대와 여러 가닥으로 피어오르는 연봉형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풍담당 부도는 정연한 치석 수법으로 깔끔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대석 상부의 석종 괴임과 석종 상부의 연화문 표현이 장식적이고 볼륨감있게 조각되어 우수한 석공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석종형 부도에 비하면 비교적 대형으로 마련되어 상당한 관심과 배려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탑비는 부도와 짝을 이루어 건립된 것으로 사방에 장대석을 마련하여 귀부가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했다. 귀부는 전체적인 평면 형태가 사각형을 이루도록 하여 조선후기 전형적인 귀부 평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귀갑 표면에는 귀갑문과 기하하적인 문양들을 장식했으며, 비좌는 사각형으로 마련하였다. 귀부는 입을 굳게 다문 형상이고, 입 좌우로 비천문양처럼 갈퀴형 문양이 길게 뻗어 있다. 비신 위에 결구된 개석은 5개의 반원을 사용한 독특한 형태로 표면에 구름과 용을 새겨 신라나 고려시대 이수의 형상에서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석 상단에는 원형 받침대와 연봉형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백화암 풍담대사 부도는 전체적으로 정연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는 석종형 양식으로 고성 건봉사에 건립된 조선후기 부도들과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탑비의 귀부와 개석의 치석 수법도 건봉사에 건립된 석비들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유사한 양식의 부도와 석비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상과 상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풍담대사는 1665년 3월 8일 입적하였는데, 탑비문에

의하면 백화암의 풍담당 탑비는 1668년 여름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풍담당이 청허대사 휴정의 법맥을 잇는 중요 승려였기 때문에 이곳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점이 고려되어 입적 직후 사리 1과가 분사리되어 표훈사 백화암의 석종에 봉안되었으며, 비문이 완성되자 그로부터 3년 후에 부도 옆에 풍담당의 탑비가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백화암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

2. 김포 文殊寺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文殊寺는 文殊山城이 있는 문수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문수산성은 사적 139호로 강화도의 갑곶진과 더불어 강화도 입구를 방어할 목적으로 1694년에 축성되었다. 산 이름은 문수산, 산성 이름이 문수산성으로 불리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산자락에 문수사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수산성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육지에서 강화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했다.

文殊寺는 新羅 惠恭王(재위 : 765~779) 때 창건된 것으로 전하기도 하고, 876년에 창건되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를 입증할만한 기록이나 유적・유물이 남아있지 않아 신뢰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웅전 옆에 고려중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석탑재가 남아있어, 늦어도 고려시대에는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1613년에 道旭化主가 중창하였고, 1809년에 다시 중창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까지 꾸준하게 법등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문수사에 조선후기 유력 승려로 이 지역 출신이었던 楓潭大師의 浮屠와 塔碑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18] 문수사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도 이 지역의 중요 사찰로 부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로 文殊寺 경내에서 서쪽 편으로 500여 미터 떨어진 지점 문수산 능선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부도와 탑비는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부도가 위치한 지점은 능선 끝 지점으로 강화도와 주변 일대가 한눈에 조망되는 곳이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부도의 위치를 정할 때 문도들에 의하여 풍수지리가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전체 높이 : 282cm) 그리고 풍담대사가 이 지역 출신으로 조선후기 유력한 승려였으며, 그가 이곳에 머물렀거나 주석하였기 때문에 이곳에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楓潭大師 浮屠는 4매의 긴 사각형 돌을 평면 사각형으로 결구하여 구획하고, 그 안쪽으로 다짐을 한 후 地臺石을 마련하였다. 地臺石은 1매로 가운데 부분 지면 아래를 원형으로 파서 石函을 奉安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石函은 2003년 5월 부도의 복원 정비 과정에서 출토되었는데, 上面에 圓孔을 마련하여 그 안에 구연부가 좁은 분청사기 대접을 아래에 놓고, 그 위에 구연부가 넓은 분청사기 대접을 뚜껑으로 삼았다. 下臺石은 평면이 팔각형으로 각 면에 眼象 1軀씩을 陰彫하고 상면에는 단판 16엽의 伏蓮紋을 장식

18) 현재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는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성동리 산 36-1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91호로 지정되어 있다.

하였다. 中臺石은 각 면 좌우에 隅柱를 模刻하고, 그 안에 1條의 陰刻線을 활용하여 타원형의 문양을 장식하였다. 上臺石은 하부에 단판 16엽의 仰蓮紋을 장식하고 면석부는 각 면을 사각형으로 2구획한 후 그 안에 1條의 陰刻線으로 眼象形 문양을 새겼다. 塔身石은 圓球形으로 상면에 圓孔을 시설하여 舍利孔을 마련하였다. 屋蓋石은 팔각형으로 높이가 높으며 落水面이 급경사를 이루며 처마 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처마부는 수평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각 모서리마다 추녀를 표현하고 있고 추녀를 중심으로 다른 부재들이 걸쳐져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목조건축물의 처마부를 모방하여 표현하였다. 상부는 합각마루를 높게 돋을새김 하였으며, 낙수면은 고르게 치석하였다. 相輪部는 圓形 1石으로 마련되었는데, 覆鉢形의 露盤을 마련한 뒤 寶輪과 寶珠 등을 차례로 올렸다. 노반에는 곡선형의 문양을 장식하였다. 이와 같이 풍담당 부도는 전체적으로 세장하지만 기단부와 탑신부의 비율이 정연하고, 조선 중후기에 성행한 결구 수법과 當代의 典型的인 樣式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대석 이하는 사각형으로 하고, 기단부와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마련한 뒤 핵심부라 할 수 있는 탑신석을 圓球形石으로 結構하여 조선 전기 이후에 건립된 八角堂形 浮屠에서 많이 활용된 수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하대석과 상대석의 연화문과 안상 조각 수법, 중대석을 좁고 낮게 한 치석 수법과 타원형 문양, 옥개석 하부의 추녀와 낙수면의 급경사 등은 조선후기에 일반화된 수법을 보이고 있다.

한편 풍담대사 부도의 지반이 침하되어 2003년 3월 31일 해체 보수하던 과정 중 원구형 탑신석 상면에 원공이 시공되어 있었으며, 지대석 하부에서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탑신석 상면의 사리공에는 풍담당의 1과의 사리가 봉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도굴된 상태였다. 그리고 지대석 하부의 사리장치는 지대석 하부의 지면을 원형으로 굴토한 다음 그 안에 원형으로 다듬은 화강암 사리장치를 매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형 화강암의 상면 중앙에는 원공을 마련하여 그 안에 뚜껑이 있는 분청사기 합을 제작하여 사리를 안장했다. 상면은 석회로 밀봉하였으며, 분청사기 합은 2003년 4월 13일 열었는데, 그 안에서 풍담당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확인되었다. 이후 원래의 사리장치는 2003년 4월 14일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하고, 새롭게 사리장치를 조성하여 2003년 5월 17일 원래의 자리에 안치하였다.

塔碑는 楓潭大師 浮屠 서쪽 바로 옆에 있으며, 南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부도도 주방향이 남쪽을 향하도록 하여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탑비는 碑座－碑身－螭首를 갖추었으며, 비신과 이수는 同一石으로 하여 총 2石으로 치석되었다. 碑座는 좌우측이 긴 사각형으로 앞면만 面石部에 連珠紋을 세로로 장식하고 隅柱를 模刻하여 사각형으로 구획한 다음 草花紋을 장식하였다. 비좌 상면에는 단판의 연입형 伏蓮紋을 돌려 장식하고 비신홈을 마련하여 碑身을 세우도록 하였다. 碑身은 前後面에 銘文을 陰刻하였으며, 前面 상단에 篆書로 碑銘을 음각하고, 풍담대사의 생애와 입적 시기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후면에는 시주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다. 螭首는 碑身과 同一石으로 마련하였는데, 花紋形의 雲紋을 가득 장식하고 前後面 가운데에 圓形으로 寶珠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塔碑 碑座의 連珠紋과 연화문 장식 수법은 조선시대 건립된 墓碑, 神道碑, 塔碑 등에서 성행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또한 螭首의 雲紋 표현 수법도 조선시대 石碑에서 일반화된 수법이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풍담당 탑비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실측치(단위 : cm) 비좌 규모 : 107×58×25, 비신 규모 122× 74×18.5, 이수 높이 36)

문수사에 세워진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는 楓潭大師가 경기도 통진 출신으로 文殊寺와 인연이 깊었고, 그가 조선후기 유력한 승려로서 활약했기 때문에 사리 1과가 문수사에 분사리되어 부도와 탑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수사 풍담당 탑비는 비문의 기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 원경

문수사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 근경

록에 의하면 趙絅이 찬하고, 李夏鎭이 書하고, 李瑞雨가 篆하여, 1668년 10월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풍담당이 입적한 1665년 3월 8일 이후 사리가 수습된 직후에 사리를 안장한 부도가 건립되고, 시간이 흘러 비문이 찬해진 다음 탑비가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탑비는 문도들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후원에 의하여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체 보수전 풍담대사 부도 전경

해체 보수전 풍담대사 부도 기단부

해체 보수전 풍담대사 부도 상륜부

보수전 풍담대사 탑비 전경

풍담대사 부도 해체 전경(2003.05.17)

풍담대사 부도 재조성 사리장치 안치

풍담대사 부도 재조성 사리장치 1

풍담대사 부도 재조성 사리장치 2

풍담대사 부도 탑구와 지대석 하부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이건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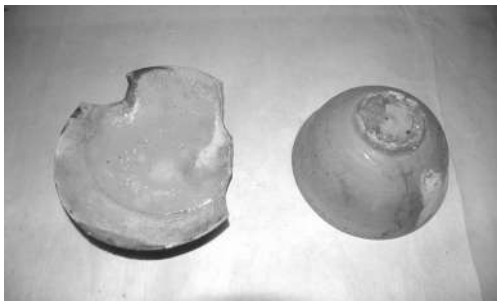
풍담대사 부도 원구형 탑신석 상면 원공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1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2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3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4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5

풍담대사 부도 지대석 하부 사리장치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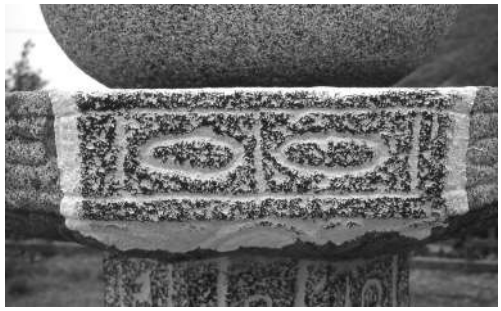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 해체 보수 후 전경

풍담대사 부도 해체 보수 후 전경

풍담대사 부도 해체 보수 후 기단부

풍담대사 탑비 전경

풍담대사 부도 중대석 탑영



풍담대사 부도 상대석 탑영

풍담대사 탑비 비좌 앞면 탑영

풍담대사 부도 비좌 후면 탑영

풍담대사 탑비 비신 앞면 탑영

풍담대사 탑비 비신 후면 탑영

풍담대사 탑비 개석 앞면 탑영

풍담대사 탑비 개석 후면 탑영

3. 해남 大興寺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

大興寺는 조선후기 유력한 승려들이 머물면서 번창했던 사찰로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이었다.[19] 이에 따라 대흥사에는 근세 건립된 부도를 포함하여 총 57기가 浮屠群을 형성하고 있으며, 塔碑는 총 16기가 세워져 있다. 57기의 부도 중 건립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도는 27기이다. 이중에서 宗師 부도는 10기, 講師 부도는 5기이다.[20] 대흥사 성보박물관 주변에도 주인공을 알 수 없는 무명 2기의 부도가 있다. 현재 서산대사 부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부도와 탑비가 밀집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1912년 해남 대흥사의 비문을 모아 편집된 「大芚寶鑑」[21] 말미에는 '諸大師浮屠' 항목을 따로 두어 당시 대흥사에 전해지고 있었던 부도들을 전재하였다. 대흥사 부도군에 건립되어 있는 총 46기의 부도 주인공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순서대로 주인공을 나열하면 阿度和尙, 性柔大師, 龜岩堂, 靜岩堂, 緣坡堂, 萬化堂, 玲峰堂, 喚惺堂, 靑虛堂」

19) 이종수, 「大興寺 掛佛을 통해 본 18세기 大興寺의 伽藍」, 『불교미술사학』 제5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2007.

20) 崔兌先, 「朝鮮時代 浮圖의 一類型 – 大芚寺 浮屠殿內 浮屠群을 中心으로 –」, 『論文集』 9집, 중앙승가대학교, 2001, p.137.

21) 海南 大興寺 碑銘 자료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韓國學文獻硏究所 編, 「大芚寶鑑」, 『大芚寺誌』, 韓國寺志叢書 6집, 亞細亞文化社, 1997, pp.316-317.

信菴堂, 撫松堂, 定月堂, 智月堂 雪岩堂, 雪峰堂, 靈谷堂, 楓潭堂, 白蓮堂」 思隱大師, 中峰堂, 白華堂, 碧海堂, 虎岩堂, 燕海堂, 華岳堂, 應星堂, 蓮潭堂」 月渚堂, 義菴堂, 冥眞堂, 月海堂, 虛靜堂, 靈松堂, 羊岳堂」 雪巖堂, 霜月堂, 龍谷堂, 樂西堂, 碧虛堂, 銀岩堂」 月坡堂, 草衣堂, 聖珠堂, 虎岩堂, 道菴堂, 玩虎堂 이다. 이중 虎岩堂을 2번 중복하여 기록하고 있어 총 45기의 부도 주인공을 전해주고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부도의 명문으로 보아 雪岩堂은 雲岩堂의 오기임을 알 수 있다. 대흥사에 건립되어 있는 부도들은 조선후기부터 최근까지 건립된 것들로 중국의 명청시대에 건립된 부도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산동성의 영암사, 신통사 탑림에 건립된 부도들과 닮았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흥사의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는 부도군의 가운데 정도에 세워져 있다. 부도는 간략하게 치석된 사각형 대석을 마련하여 그 위에 석종형 탑신을 올렸다. 석종은 상하부의 지름이 거의 동일하여 원주형처럼 치석되었으며, 상부에는 원형으로 보주를 올려 마무리하였다. 그리고 석종 앞면에 '風潭堂'이라고 세로로 음각하여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했는데, 楓을 風으로 새겨 착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옆에 세워져 있는 탑비와 풍담당의 행적으로 보아 주인공이 楓潭堂임은 확실하다. 풍담당의 탑비는 귀부–비신–이수가 결구된 전형적인 석비 양식이 적용되었다. 귀부는 조선후기 귀부들처럼 간략화된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으며, 이수부는 조각 기법이 신라나 고려시대에 비하여 역동성은 떨어지지만 표면에 권운문과 용문을 새겨 전대의 양식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다. 풍담당의 탑비는 비문의 기록에 의하면, 金宇亨이 찬하고, 李楨이 篆하여, 1692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풍담대사의 문도들은 그가 1665년 3월 8일 입적하자 靈骨 1片과 舍利 5顆를 수습하여 여러 곳에 부도와 탑비를 세웠다. 기록에 의하면 금강산 表訓寺, 묘향산 普賢寺, 연천 深源寺, 김포 文殊寺, 해남 大興寺 등에 사리 1과씩을 안장한 부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사리 5과가 수습되었기 때문에 5寺에 부도를 건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도는 일반적으로 사리가 수습된 직후에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아 대흥사의 풍담당 부도도 입적 직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문이 완성되고 문도들에 의한 추모 사업의 일환으로 입적한 지 28년이 지났지만 부도 옆에 풍담대사의 탑비를 건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흥사 풍담대사 부도와 탑비

4. 연천 深源寺 楓潭大師 浮屠

연천 심원사지는 보개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도군은 사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되어 있다. 심원사는 647년 靈源祖師가 靈源寺, 法華寺, 忉利寺와 함께 靈珠山의 4대 사찰 중 하나로 창건하였으며, 창건 당시의 이름은 興林寺였다고 한다. 이후 영원사, 법화사, 도리사는 고려시대 들어와 모두 폐사되었지만 흥림사는 법등이 꾸준하게 지속되었다고 한다. 720년에는 사냥꾼 李順碩이 지장보살의 감화를 입어 지장성지인 石臺庵을 창건하였으며, 859년에는 梵日國師가 절을 중창하고 千佛을 조성 봉안하였으며, 이듬해에는 聖住庵, 南庵, 地藏庵을 새롭게 창건하였다. 그리고 고려시대 심원사의 연혁을 전

해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사적기에 法喜居士 閔漬가 1307년 석대암 사적을 지었고, 1320년에 사적비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 법등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인 1393년 3월 29일에 절이 불타 버리자[22] 이를 애석하게 생각한 無學大師가 1395년 절을 중건하고 산이름을 寶蓋山, 寺名을 심원사로 개칭하였다. 1398년에는 무학대사가 다시 성주암을 중창하였고, 1400년에는 심원사 승려들이 석대암을 중창하였다. 이후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1595년 印崇스님과 正仁스님 등이 중건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발간된『深源寺誌』에 의하면 1925년 주지 洪月運과 법무 李鎭學의 주도로 심원사 동쪽에 흩어져 있던 부도와 석비를 모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웠다고 한다. 이후 부도중 일부는 한국전쟁 시 파손되거나 반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한국전쟁 전에는 4기의 석비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山王大神碑는 반출되어 행방을 알 수 없으며, 8基의 부도도 밀반출되었다고 한다.[23] 그래서 현재는 부도군에 2基의 석비와[24] 12基의 부도가 세워져 있다. 한편 1942년 간행된『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의「深源寺誌」에 의하면 심원사에는 전체 20基의 부도가 세워져 있는데, 10기는 주인공을 알 수 있고 나머지 10기는 글자가 파손되어 주인공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부도는 淸心堂, 浩然堂, 靑霞堂, 楓潭堂, 道□堂, 蓮月堂, 翠雲堂, 逍遙堂, 虛白堂, 霽月堂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25] 이러한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전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현재 주인공을 알 수 있는 부도로는 霽月堂, 翠雲堂, 楓潭堂, 浩然堂, 靑霞堂, 淸心堂 등이다.

연천 심원사지에는 풍담당의 부도와 탑비가 함께 건립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부도만 남아있다. 부도군 상단에는 청허당의 법손이 靑霞堂을 비롯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부도들이 건립되어 있는데, 풍담당 부도는 청하당 부도 향좌측편에 위치하고 있

22)『太祖實錄』2年, 3月 29日(甲戌).

23) 漣川文化院,『鄕土史料集』, 1995, pp.493-496.

24) 현존하는 2기의 석비는 霽月堂大師碑와 翠雲堂大師碑이다. 霽月堂大師碑는 碑文은 申翊聖이 찬하고, 李珖이 썼으며 1636년 8월에 건립되었다. 翠雲堂大師碑는 비문은 鄭斗卿이 짓고, 글씨와 篆額은 尹魯翁이 썼으며, 陰記는 승려 廣惠가 썼다. 1652년 8월에 건립되었다.

25) 韓國學文獻硏究所 編,「深源寺誌」,『金剛大本山楡岾寺本末寺誌』, 韓國寺志叢書 3집, 亞細亞文化社, 1977, p.618.

다. 기단부는 매몰되어 원형을 알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이 결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연한 기단부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대석과 상대석인 연화문이 상하대칭을 이루며 장식되어 있으며, 중대석은 팔각형으로 각 면에 벽선을 활용한 사각형 구획이 마련되어 있다. 상대석은 팔각으로 단판 16엽의 연화문을 새겼으며, 상부에 별석처럼 높게 탑신괴임을 팔각으로 마련하였다. 탑신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石柱形으로 앞면에 세로로 '楓潭'이라고 음각하여 주인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옥개석은 팔각으로 낙수면을 두툼하게 하여 둔중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낙수면도 높게 급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조선후기 부도에서 많이 채용된 옥개석 치석 수법이다. 옥개석 합각부는 반원형으로 높게 돌출시켰으며, 상부에는 연화문이 표현된 상륜받침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상륜부는 남아있지 않지만 높게 받침부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아 별석으로 치석 결구하였으며, 장식적인 상륜부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심원사지 풍담당 부도는 탑비가 남

심원사 풍담대사 부도

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담양 용흥사 부도를 비롯하여 조선후기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채용된 간략화된 팔각당형 양식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풍담당 입적 직후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Ⅳ. 楓潭大師 浮屠와 塔碑의 美術史的 意義

풍담대사가 1665년 3월 8일 입적하자 문도들은 조문 기간이 지난 후 유체를 다비하여 靈骨 1片과 舍利 5顆를 수습하게 된다. 그리고 제자들은 수습한 靈骨과 舍利를 分舍利하여 풍담대사와 인연이 깊었던 사찰에 부도를 세워 安藏하고, 碑를 세운다. 풍담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에 의하면 금강산 表訓寺, 묘향산 普賢寺, 연천 深源寺, 김포 文殊寺, 해남 大興寺 등에 사리 1과씩을 안장한 부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당시 부도는 영골과 사리를 안장하는 墓塔 성격의 기념물이기 때문에 治石이 완성되면 곧바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5寺에 건립된 부도는 풍담대사가 입적한 직후에 건립되었을 것이다. 풍담대사 비문에는 이미 건립되어 있는 부도의 높이나 위치 등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도,[26] 부도는 비문이 찬술되기 이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구분	表訓寺 白華庵	김포 文殊寺	묘향산 普賢寺	해남 大興寺	연천 深源寺
浮屠	입적 직후	입적 직후	입적 직후(?)	입적 직후	입적 직후
塔碑	1668년 여름	1668.10	1681.7	1692년	?

26) 예를 들면 文殊寺 楓潭大師碑文에는 '三尺浮屠'라고 기록되었고, 비문 말미에 '竪塔于通津比兒山文殊寺北'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비문 찬자인 趙炯이 이미 세워져 있는 부도의 규모와 위치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비는 부도와 짝을 이루어 건립되는데, 일반적으로 찬자에 의하여 비문이 완성된 후에 세워지게 된다. 금강산 表訓寺 白華庵에는 李端相(1628~1669년)이 撰하고, 『大東金石書』를 편찬한 李傸(1637~1693년)가 書한 碑가 1668년 여름에 건립된다.[27] 表訓寺 白華庵에는 풍담대사가 입적한지 3년이 조금 넘어서 탑비가 건립되며, 비문을 통하여 볼 때 많은 문도들이 탑비 건립에 참여 내지는 후원했음을 알 수 있다.[28] 그리고 김포 文殊寺에는 비문 찬자가 부도의 규모와 위치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楓潭大師의 영골과 사리를 안장한 부도가 입적 직후에 세워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찬자가 직접 부도가 건립된 장소를 답사했거나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을 전해주었음을 알려준다. 碑文에 의하면 문수사에는 楓潭大師가 입적한 지 4년째 되는 해인 1668년 10월에 비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29] 문수사 풍담대사의 탑비문 撰者는 趙炯이며, 書者는 李夏鎭이었다. 楓潭大師 塔碑는 금강산 表訓寺에는 1668년 여름에 건립된 반면 文殊寺는 이보다 약간 늦은 10월에 세워졌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중심적인 사찰에 먼저 건립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찰에 차례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묘향산 普賢寺에는 趙宗著(1631~1690)가 撰하고, 朗善君 李傸가 書한 비가 1681년 7월 건립된다.[30] 풍담대사가 입적한지 17년이 되는 해이다. 해남 大興寺에는 부도의 건립과 아울러 탑비가 풍담당의 門人이었던 俊機와 道安 등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리고 연천 深源寺에도 현재 탑비는 남아있지 않지만 '楓潭堂'이라고 주인공이 陰刻된 부도가 남아있어 기록과 현존 유물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7) '戊申 仲夏 俊機 立石'

28) 李端相(1628~1669)이 찬한 楓潭大師碑(金剛山楓潭大師碑銘竝序)가 금강산에 건립된다. 현재 비문 탑영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전하고 있다.(楓潭大師碑銘 청구기호 枚 1723 36)

29) '戊申 十月 日 立'
문수사 풍담대사 비문이 소개된 모든 자료의 干支와 탑영한 것도 동일하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면서 입적한 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부도와 비가 건립되었다. 또한 영골이나 사리를 안장한 부도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건립하는 것도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戊申'은 풍담대사가 입적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해로 볼 수 있다.

30) 묘향산 보현사에 세워진 楓潭大師碑(妙香山楓潭大師碑銘竝序)는 趙宗著(1631~1690)가 찬하고, 朗善君 李傸(1637~1693)가 썼으며, 李侃(1640~1699)이 碑銘을 篆字하였다. 비문 말미에 '崇禎紀元戊辰後五十四年辛酉七月日立碑'라고 음각되어 있어 1681년 건립되었을 알 수 있다. 현재 비문 탑본이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전하고 있다(楓潭大師碑銘 청구기호 枚 1723 30).

이와 같이 楓潭堂은 正陽寺에서 입적하였지만 서산대사의 법맥을 잇는 대표적인 승려로서 중심적인 사찰이라 할 수 있는 金剛山 表訓寺에 먼저 부도와 탑비가 건립된 이후 分舍利되어 김포 文殊寺, 묘향산 普賢寺, 연천 深源寺, 해남 大興寺 등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탑비는 비문이 완성된 이후 부도 옆에 건립되었다.

구분	表訓寺 白華庵	金浦 文殊寺	妙香山 普賢寺	海南 大興寺	漣川 深源寺
浮屠			?		
塔碑			?		?
	1668년 여름	1668.10	1681.7	1692년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楓潭大師의 浮屠와 塔碑의 美術史的 意義를 살펴보면, 먼저 부도와 탑비의 건립 연대가 비교적 명확하고, 分舍利에 의한 부도의 건립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제자들은 풍담대사가 1665년 3월 8일 金剛山 正陽寺에서 입적하자 스승의 유체를 화장한 후 靈骨과 舍利 5顆를 수습한다. 제자들은 당시 유력한 승려들의 경우 分舍利하여 살아생전에 주석하였거나 인연이 깊은 사찰에 부도를 건립하는 전통에 따라 여러 곳에 부도를 건립하게 된다. 풍담당의 경우 부도와 탑비가 5寺에 건립되었는데, 조선후기 들어와 불교계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승려들의 경우 현재 확인된 것에 의하면 2寺~10寺까지[31] 다양하게 분사리에 의하여 여러 곳에 부도가 건립되었다.[32] 고려

말기 입적한 선각왕사 혜근, 원증국사 보우를 시작으로 유력한 고승들의 경우 分舍利하여 여러 사찰에 부도를 건립한다. 楓潭堂의 浮屠는 고려 말기부터 分舍利하여 여러 곳에 부도와 탑비를 건립하던 전통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유력한 승려들의 경우에만 分舍利하여 여러 곳에 부도를 건립하였던 것으로 보아 풍담대사가 당대의 불교계에서 상당한 예우를 받았던 승려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한편 분사리에 의한 부도의 건립이 17세기까지는 원거리에 소재한 사찰에도 이루어졌지만, 18세기대에 들어와서는 성능대사처럼 특정 승려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거리에 위치한 사찰에 건립되었다. 풍담당의 부도 건립은 17세기의 분사리 부도 건립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楓潭大師의 浮屠와 塔碑는 5寺에 한 쌍으로 건립하여 新羅와 高麗時代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억압받고 쇠퇴하면서 부도의 건립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다가 兩亂을 겪은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불교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승려들에 대한 예우가 높아지면서 부도의 건립이 성행하게 된다. 그런데 유력한 승려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도만 세워지는데, 풍담대사의 경우 유력한 승려로서 부도와 탑비가 모두 한 쌍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 불교가 다시 성행하면서 부도와 탑비를 한 쌍으로 건립하는 전대의 조영 기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풍담당의 부도는 5寺에 건립되었는데, 이중에서 표훈사 백화암의 풍담당 부도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전형적인 석종형 양식을 보이고 있으며, 문수사 풍담당의 부도는 탑신석이 원구형으로 마련되었지만 기단부와 옥개석 등의 평면이 팔각형을 유지하고 있어 조선후기의 전형적인 팔각당형 양식이 채용되었다. 해남 대흥사의 풍담당 부도는 호

---

31) 幻寂堂 義天(1603~1690)의 경우 海印寺에서 입적하였는데, 그의 부도는 大谷寺, 鳳巖寺, 淸平寺, 德周寺, 龍淵寺, 覺華寺, 演水寺, 海印寺 등에 건립되었다. 그리고 友雲堂 眞熙大師의 경우 통도사에 건립된 비문에 의하면 양산 통도사, 경주 원원사, 동래 범어사, 성주 용연사, 밀양 영정사, 대구 용천사, 청도 적천사, 울산 운흥사, 경산 경흥사, 청송사 등 10寺에 부도가 건립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명문에 의하여 부도 주인공을 알 수 있는 양산 통도사, 청도 용천사, 부산 범어사, 밀양 표충사에 부도가 현존하고 있다.

32) 嚴基杓,「朝鮮時代 分舍利에 의한 石造浮屠의 建立」,『전통문화논총』3호, 한국전통문화학교, 2005.

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성행한 간략한 형태의 석종형 양식이 적용되었으며, 심원사의 풍담당 부도는 탑신석을 석주형으로 마련한 간략한 치석 수법과 장식을 보이는 팔각당형 양식으로 건립되었다. 조선후기 여러 사찰에 여러 기의 부도가 건립될 경우 서로 다른 양식이 적용되기도 하고, 같은 양식의 부도가 건립되기도 한다. 그런데 풍담당 부도는 현재 묘향산 보현사에 건립된 부도의 양식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전체적으로 석종형과 팔각당형 양식이 모두 채용되어,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부도 양식이 모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수사 풍담당의 부도는 해체 보수 과정 중 地臺石 아래에서 사리장치가 확인되어, 당대 승려들의 부도 건립에 따른 葬禮法을 알려주고 있어 학술적으로 귀중한 자료이다. 신라와 고려시대에도 부도 건립 시 일부 부도에서 지하에 유골이나 사리를 매납한 시설이 확인되고 있으며, 탑신에 사리를 봉안한 별도의 사리공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풍담당의 부도는 탑신석의 사리장치는 도난당하였지만 圓球形 塔身石에 별도의 圓孔을 마련하여 다비 후 나온 사리를 分舍利하여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고, 부도의 지대석 아래에는 靈骨이나 遺品을 埋藏한 별도의 시설물이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어 浮屠라는 造形物의 造營 目的과 그 意義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문수사 풍담당 부도는 전대의 영골이나 사리 봉안법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꾸준하게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Ⅴ. 結　論

풍담대사는 西山大師 休靜의 법통을 이었던 승려로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풍담대사의 부도는 금강산 일대의 표훈사와 건봉사, 묘향산 보현사, 호남지역의 대흥사, 경기지역의 연천 심원사 등 조선후기 불교계의 중심적인 사찰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찰들은 풍담대사가 주석했거

나 수행했던 사찰들이다. 풍담대사의 부도와 탑비가 부휴계의 중심 사찰이었던 순천 송광사에는 건립되지 않았지만, 그 이외의 사찰에 건립되었다는 것은 그가 당대 불교계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와 예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풍담대사의 부도는 조선후기 성행한 양식으로 간략화의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팔각당형 양식이 적용되었고, 부도 건립에 따른 탑비의 건립이 한 쌍으로 조영되었다. 이러한 점은 조선시대에도 신라와 고려시대의 부도와 탑비 건립 전통이 큰 변화없이 계승되었음을 알려준다.

신라와 고려시대는 부도가 살아생전의 법계와 행적에 비추어 입적 이후 세워주는 禮遇的 차원의 조형물로서 특정 승려에 한하여 건립되었다면, 조선후기는 후대인들이 승려 입적 이후 세워주는 墓塔的 조형물로서 紀念的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러한 시대상의 변화로 조선후기는 전국 사찰에 걸쳐 많은 양의 부도가 건립되었고, 다양한 양식의 부도들이 확인되고 있다. 부도와 탑비의 건립도 특정 승려를 제외하고는 1僧 – 1寺 – 1塔 – 1碑 원칙이었는데, 조선시대에는 1僧 – 多寺 – 多塔 – 多碑 전통이 정립 계승된다. 특히 유력 승려들의 경우 분사리에 의한 부도의 건립이 이루어진다. 풍담대사의 부도와 탑비도 그러한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 향후 조선시대 분사리 부도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그동안 필자가 현지 조사한 자료를 부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부도가 현존하고, 그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표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기록으로만 분사리 부도가 건립된 경우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 分舍利에 의한 浮屠 建立 現況 】

(입적 시기 기준)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指空禪師	? ~ 1363. 11.29	中國 天壽寺	1檜巖寺 2妙香山 安心寺 3華藏寺	1370 1384 1370년 직후			?			– 禪覺王師 惠勤이 法印을 받은 元나라 고승으로 원나라에서 1363년 11월 29일 입적하자, 문도들이 1368년 유골을 다비하여 사리를 4分. 이중에 1分을 達睿가 고려로 가져와 惠勤에게 전달.
					檜巖寺	華藏寺	安心寺			
禪覺王師 惠勤	1320 ~ 1376. 05.15	神勒寺	1檜巖寺 2神勒寺 3安心寺 4令傳寺 5正陽寺 6華藏寺	1376.08.15 1376.08 1384 1388 1376~1384 1376년 직후						– 碑文에 의하면 禪覺王師 惠勤의 舍利塔은 志林은 金剛山, 勝明은 雉岳山, 覺明은 小白山, 覺寬은 四佛山, 志先은 龍門山, 勝哲은 九龍山, 覺淸은 妙香山, 妙覺은 天寶山 檜巖寺, 覺信은 鳳尾山 神勒寺 등 총 9곳에 奉安되었다고 함
					檜巖寺	神勒寺	令傳寺			
圓證國師 普愚	1301. 09.21 ~ 1382. 12.24	小雪庵	1太古寺 2舍那寺 3陽山寺(鳳巖寺) 4小雪庵 5靑松寺	1383 1383 1383 1383 1383년 이후						– 小雪庵에서 舍利를 수습한 후 國王에게 올린 100과 봉안
					太古寺	舍那寺	鳳巖寺(추정)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己和大師 涵虛堂 得通	1376 ~ 1433. 04.01	鳳巖寺	1鳳巖寺 2懸燈寺 3淨水寺 4烟峯寺							
					鳳巖寺	懸燈寺	淨水寺			
學祖 燈谷和尙	1432 ~ ?	直指寺	1속리산 福泉庵 2直指寺							
					福泉庵	直指寺(추정)				
西山大師 休靜	1520.03 ~ 1604.01	妙香山 圓寂庵	1妙香山 普賢寺 2安心寺 3表訓寺 白華庵 4大興寺					?		– 금강산 유점사에도 봉안되었다고 함
					普賢寺	白華庵	大興寺	安心寺		
靜觀堂 一禪	1533 ~ 1608	무주 白蓮寺	1白蓮寺 2安心寺			?				– 현재 안심사에 여러 기의 부도가 남아있으나 명문이 없어 확인 불가
					白蓮寺	安心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浮休大師 善修	1543.02 ~ 1615. 11.01	方丈山 七佛庵	1海印寺 2順天 松廣寺 3雙磎寺 七佛庵 4實相寺 百丈庵					?		– 비문에 의하면 4곳에 분사리하여 부도를 건립했다고 함
					海印寺 國日庵	松廣寺	七佛庵	百丈庵		
霽月堂 敬軒	1544. 01.14 ~ 1633. 12.26	?	1寶蓋山 深源寺 2金剛山 表訓寺 3持提山 天冠寺 4大海山 妙喜庵			?	?	?		– 심원사에 탑비만 유존
					表訓寺 白華庵	深源寺	天冠寺	妙喜庵		
鞭羊堂 彦機	1581.07 ~ 1644. 05.10	內院庵	1表訓寺 白華庵 2妙香山 普賢寺	1650년경		?				
					白華庵	普賢寺				
孤閑堂 熙彦	1572 ~ 1647	?	1팔공산 桐華寺 2가야산 海印寺 3속리산 法住寺				?			
					桐華寺	海印寺	法住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逍遙大師 太能	1562.09 ~ 1649. 11.21	鷰谷寺 (?)	1白羊寺 2鷰谷寺 3龍秋寺 4深源寺 5金山寺 6大芚寺							– 『소요당집』, 『동사열전』, 「금산사 소요당대사부도비」
					白羊寺	鷰谷寺	龍秋寺	深源寺	金山寺	
碧巖大師 覺性	1575. 12.23 ~ 1660. 01.12	智異山 華嚴寺	1지리산 華嚴寺 2조계산 松廣寺 3가야산 海印寺 4속리산 法住寺 5종남산 松廣寺	1663년					?	– 碑文과 白谷 處能의 『대각등계집』 하권에 실린 행장 – 사찰기에 따르면 화엄사 석종은 1663년 건립 – 탑비는 화엄사와 법주사에서 세워짐
					華嚴寺	順天 松廣寺	海印寺	完州 松廣寺	法住寺	
慈雲堂 潤訥	? ~ 17세기 중반경	?	1南原 實相寺 2求禮 華嚴寺							– 현존 부도가 확인되고 있음 – 송광사 융묘대사탑의 친형
					華嚴寺	實相寺				
虛白堂 明照大師	1593. 11.09 ~ 1661. 09.08	?	1妙香山 普賢寺 2表訓寺 白華庵 3深源寺 4貝葉寺 5大興寺							
					深源寺	白華庵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楓潭大師 義諶	1592 ~ 1665. 03.08	正陽寺	1연천 深源寺 2김포 文殊寺 3해남 大芚寺 4妙香山 普賢寺 5表訓寺 白華庵						?	
					深源寺	文殊寺	大興寺	表訓寺 白華庵	普賢寺	
翠微大師 守初	1590. 06.03 ~ 1668.06	仲州 五峰山 三藏寺	1仲州 五峰山 2鶴城 雪峰山 3昇平 曹溪山							– 제자 栢庵 性聰(1631~1700)이 지은 翠微大師 守初의 행장 – 오봉산 삼장사는 함흥의 삼장사 – 학성 설봉산은 함경도 설봉산의 석왕사 지칭
					順天 松廣寺					
松坡堂 恪敏	1596 ~ 1675	?	1海印寺 2龍淵寺							– 대구 용연사는 바로 옆에 송파당비가 서있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이 송파당일 것으로 추정
					海印寺 弘濟庵	대구 龍淵寺(?)				
幻寂堂 義天	1603. 04.05 ~ 1690. 08.26	海印寺	1大谷寺 2鳳巖寺 3淸平寺 4德周寺 5龍淵寺 6覺華寺 7演水寺 8海印寺						?	– 정골은 仁同 大谷寺에 사리 7과는 나머지 사찰에 봉안 – 대구 용연사와 봉화 각화사에도 명문은 새겨지지 않았지만 환적당 의천의 것으로 추정되는 부도 유존
					淸平寺	德周寺	鳳巖寺	海印寺	大谷寺 (현 大興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友雲堂 眞熙大師	? ~ 1694(?)	1梁山 通度寺(정골 2매) 2경주 遠願寺 3동래 梵魚寺 4성주 龍淵寺(달성 龍淵寺) 5밀양 靈井寺(表忠寺) 6대구(청도) 涌泉寺 7청도 磧川寺 8울산 雲興寺 9경산 慶興寺 10靑松寺								– 통도사 우운당 석비의 비문에 9州 10寺에 정골과 사리를 분안했다고 함 – 대구 용연사에 우운당의 부도가 건립(1722년 건립 용연사중수비)
					通度寺	涌泉寺	梵魚寺	表忠寺		
柏庵大師 性聰	1631. 11.15 ~ 1700. 07.25	神興寺	1순천 松廣寺 2쌍계사 七佛寺							– 「송광사백암대선사비」
					順天 松廣寺	七佛庵				
東雲堂 慧遠大師	? ~ 1703(?)	?	1通度寺 2涌泉寺 3龍淵寺	1704년경		?	?			– 『通度寺誌』에 수록된 『佛宗刹略史』의 「立石及浮屠列目」 – 비문에 사리 2매가 나오자 1매는 통도사, 1매는 용천사, 靈骨은 용연본사에 봉안했다고 기록됨 – 현재 용연사에 탑비는 유존
					通度寺	涌泉寺	龍淵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雪巖堂 秋鵬	1651. 08.27 ~ 1706. 08.05	?	1海南 大芚寺 2樂安 澄光寺			?				
					大興寺	澄光寺				
霜峯 淨源大師	1627.11 ~ 1709. 02.08	楊平 龍門寺	1大邱 桐華寺 2淸州 菩薩寺 3楊平 龍門寺 4醴泉 龍門寺	1709년경			?	?		– 다비 후 靈骨, 靈珠 1쌍, 舍利 2顆를 수습
					桐華寺	菩薩寺	楊平 龍門寺	醴泉 龍門寺		
月渚 道安	1638 ~ 1715	?	1普賢寺 2海南 大興寺 3평양							
					海南 大興寺					
碧虛堂 圓照	1658 ~ 1725	?	1海南 大興寺 2完州 松廣寺 3完州 威鳳寺 4金堤 金山寺 5尙州 黃嶺寺(?) 6경북대박물관(?)							– 현존하는 부도로 작성 – 완주 위봉사 결실
					海南 大興사	完州 松廣寺	金堤 金山寺	尙州 黃嶺寺	경북대 박물관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桂影堂 守行	? ~ 1737(?)	?	1포항 泉谷寺 2포항 寶鏡寺 瑞雲庵	1737년경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泉谷寺	瑞雲庵				
雪峰堂 懷淨	1678. 01.05 ~ 1738. 06.08	達摩山 普賢庵	1海南 大興寺 2海南 美黃寺 3山淸 大源寺(?)	1738년경						
					海南 大興寺	海南 美黃寺	山淸 大源寺			
淸波堂 雷善	? ~ 1744(?)	?	1포항 泉谷寺 2포항 寶鏡寺 瑞雲庵	1744년경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泉谷寺	瑞雲庵				
雪松堂 演初大師	1676. 05.01 ~ 1750. 05.01	?	1淸道 雲門寺 2梁山 通度寺	1750년경						– 1754년 탑비 건립
					雲門寺	通度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影海大師 若坦	1668. 10.01 ~ 1754. 01.03	松廣寺	1高興 楞伽寺 2順天 松廣寺	1754년경		?				– 法孫 默庵大師 最訥이 지은 影海大師 若坦의 행장
					順天 松廣寺	楞伽寺				
桂坡堂 聖能大師	? ~ 1750 년대 중반경 입적	?	1高陽 奉聖庵 2求禮 華嚴寺							– 북한산 봉성암에 성능대사의 것으로 전하는 부도 유존 – 구례 화엄사에 '桂坡堂' 명문이 있는 부도 유존
					高陽 奉聖庵	求禮 華嚴寺				
碧霞堂 大愚	1676 ~ 1763	?	1海南 大興寺 2海南 美黃寺			?				– 1764년 미황사에 탑비 건립됨 – 대흥사 13대종사 중 7대 종사
					美黃寺	大興寺				
霜月 璽筍	1687 ~ 1766	?	1悟道山 2順天 仙巖寺 3海南 大興寺				?			– 선암사에 탑비 유존
					仙巖寺	大興寺	悟道山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瑞谷堂 粲淵	1702 ~ 1768	水墮寺	1횡성 鳳腹寺 2홍천 水墮寺			?				– 수타사에 석비는 남아 있는데 부도는 명문이 없이 불명확
					鳳腹寺	水墮寺				
松梅堂	? ~ ?	?	1아산 洗心寺 2아산 洗心寺							– 동일 사찰에 동일 승려의 부도를 2기 건립한 사례
					洗心寺					
金坡堂 圓慧	? ~ 1773(?)	?	1창원 聖住寺 2진해 聖興寺	1773년경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聖住寺	聖興寺				
雪坡堂 尙彦	1707 ~ 1791.01	?	1고창 禪雲寺 2함양 靈源寺 3순창 龜巖寺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禪雲寺	靈源寺	龜巖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天峯堂 泰屹	1710 ~ 1793	白川 護國寺	1白川 護國寺 2文化 月精寺 3楊州 望月寺							
					望月寺					
道庵堂	? ~ ?	?	1화순 開天寺 2해남 大興寺 3나주 佛會寺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開天寺	大興寺	佛會寺			
仁嶽堂 義沾	1746. 09.09 ~ 1796	明寂菴	1대구 桐華寺 2대구 龍淵寺			?				– 대구 동화사에 인악대사비가 세워졌던 것으로 보아 부도가 건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龍淵寺	桐華寺				
臥雲堂 義心	? ~ ?	?	1고성 雲興寺 2사천 多率寺	?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雲興寺	多率寺				

僧名	生沒年	入寂寺刹	建立寺刹 (기록/현존)	時期	浮　　屠					비　고
蓮潭堂 有一	1720. 04.30 ~ 1799. 02.03	장흥 寶林寺 三聖庵	1海南 大興寺 2海南 美黃寺 3務安 法泉寺							– 『동사열전』에 의하면 대흥사, 미황사, 법천사 3곳에 부도를 세웠다고 함 – 法泉寺는 현 무안 牧牛庵
					海南 大興寺	海南 美黃寺	務安 法泉寺 (牧牛庵)			
西峰堂	? ~ ?	?	1고창 禪雲寺 2완주 松廣寺 3김제 金山寺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禪雲寺	完州 松廣寺	金堤 金山寺			
應化堂 有閑	1813 ~ 1885. 04.02	大芚寺	1海南 大芚寺 2海南 美黃寺	1885년경		?				– 『東師列傳』, 應化講伯條에 의하면 대흥사 남암에 세웠다고 함
					美黃寺	大興寺				
肯坡堂 大淵大師	? ~ ?	?	1淸道 雲門寺 2梁山 通度寺	1914년경		?				– 현존하는 유물로 작성 – 운문사는 부도는 남아 있지 않고 탑비만 유존
					通度寺	雲門寺				

彙　　報

(2012. 1. 2 ~ 2012. 12. 31)

❑ 민속 · 복식분야 제30회 정기학술발표회

○ 주　제 : 조선 마지막 공주, 덕온家의 유물

○ 일　시 : 2012년 5월 11일(금) 09:00~14:30

○ 장　소 : 단국대학교 콘서트홀

○ 내　용

1. 德溫公主家 유물 소장 배경과 유형별 특징
   –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
   박성실(난사전통복식문화재연구소장)
2.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덕온공주 가례 절차
   이　욱(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3. 『덕온공주가례등록』을 통해 본 공주가례복식
   이은주(안동대학교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4.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머리양식 재현
   김민정(신흥대학교 뷰티아트디자인과 조교수)
5. 덕온공주의 일생과 가문
   신명호(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6. 덕온공주 집안 유물 중 한글 자료에 대하여
   황문환(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민속 · 복식분야 제31회 특별전

○ 주　제 : 조선마지막공주 덕온가의 유물

○ 개막식 : 2012년 5월 11일(금) 15:00

○ 기　간 : 2012년 5월 11일(금) ~ 2012년 6월 30일(토)(총50일간)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4전시실

○ 내　용 : 故 蘭斯 石周善(1911~1996)박사가 수집한 '덕온공주와 그 후손'의 유물을 전시하였다. 관련 유물은 석주선 박사와 덕온공주의 손녀인 윤백영 여사가 1950년대 후반 장서각에서 첫 만남을 시작하면서 이어온 오랜 인연으로 소장하게 되었으며, 특별전을 통해 공개된 유물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 222점 등이다.

○ 후　원 : 경기도, 용인시

❑ 고고 · 미술분야 제27회 정기연구발표회

○ 주　제 : 朝鮮時代의 石造浮屠

○ 일　시 : 2012년 5월 25일(금) 14:00~18:00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컨벤션홀(206호)

○ 내　용

1. 기조강연 : 朝鮮時代의 石造浮屠
   정영호(단국대학교 석좌교수 · 석주선기념박물관장)
2. 연구발표 가 : 朝鮮 前期의 石造浮屠
   최인선(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3. 연구발표 나 : 朝鮮 後期의 石造浮屠
   홍성익(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 고고 · 미술분야 제3회 특별전

○ 주　제 : 皆蓋以瓦 高麗瓦塼(고려 기와와 전돌 – 김대환 선생 기증유물 포함 –)

○ 개막식 : 2012년 11월 1일(목) 11:00

○ 기　간 : 2012년 11월 1일(목) ~ 2012년 11월 30일(금)(총30일간)

○ 장　소 :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전시실

○ 내　용 : 개교65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재조명하고 김대환선생이 기증한 유물을 연구 기초 자료로 공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하였

다. 전시 유물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고려시대의 기와와 전돌 등 400여점이다.

❑ 민속 · 복식분야 학술조사 및 학술용역

○ 문경 평산신씨 묘 출토 복식 및 문경 최진일가 묘 출토복식 복제품 제작 용역

– 기　　간 : 2011년 11월 1일 ~ 2012년 12월 27일

– 위탁기관 : 문경옛길박물관

출토 저고리

출토 장옷

○ 오창출토 권익겸 내외묘 출토복식 발굴조사 및 보존처리

– 기　　간 : 2012년 3월 13일 ~ 2013년 7월 31일

– 위탁기관 : 중원문화재연구원

현장수습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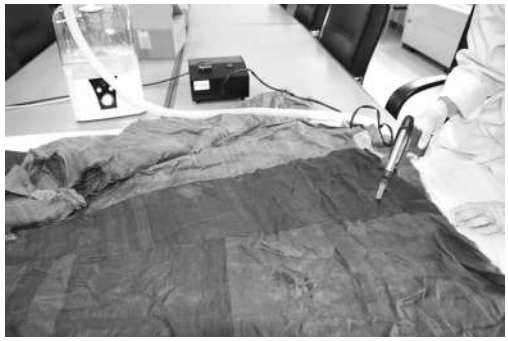
보존처리 과정

○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보존처리

– 기　　간 : 2012년 3월 23일 ~ 2012년 7월 14일

– 위탁기관 : 독립기념관

광복군기 보존처리 과정



정재건 단령 보존처리 과정

○ 이회영 선생 의복 복제

– 기　　간 : 2012년 5월 4일 ~ 2012년 10월 30일

– 위탁기관 : 독립기념관

이회영선생 의복유물(전시상태)

이회영 선생 의복 복원품

❑ 고고 · 미술분야 학술조사

○ 경주 · 울산지역 유적 조사

– 기　간 : 2012년 1월 9일 ~ 2012년 1월 12일

– 대　상 : 경주 석굴암, 경주 벌지지, 울산 박제상 발선처 등 관련 유적

경주 長沙伐知旨碑

울산 新羅忠臣朴堤上公使倭時發船處碑

○ 중봉 조헌 선생 관련 유적 조사

– 기　간 : 2012년 4월 20일 ~ 2012년 4월 21일

– 대　상 : 충북 옥천군 가산사 등 조헌선생 관련 유적

중봉 조헌선생묘비 탑영

조헌 선생과 영규대사 영정(가산사 영정각)

○ 양주 회암사지 석조문화재 조사 및 탑영

– 기　간 : 2012년 6월 19일

– 대　상 :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에 소재한 석조문화재

회암사지 나옹선사 부도 및 탑비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 일본 對馬島 韓國先賢顯彰碑 조사 및 탑영

– 기　간 : 1차 2102년 6월 29일 ~ 2012년 7월 2일

2차 2012년 7월 27일 ~ 2012년 7월 30일

– 대　상 : 일본 對馬島 소재 大韓人崔益鉉先生殉國之碑 등 韓國先賢顯彰碑 10기 및 한국 관계 유적

對馬島 修善寺 大韓人崔益鉉先生殉國之碑

對馬島 朝鮮國譯官使殉難之碑

○ 中國 內蒙古지역 문화유적 조사

– 기 간 : 2012년 8월 14일 ~ 2012년 8월 21일

– 대 상 : 중국 요녕성, 내몽고 지역 문화유적

赤峰 三座店 유적

赤峰 紅山文化 유적

○ 양양 道寂寺址 조사

– 기 간 : 1차 2012년 11월 22일

2차 2012년 12월 18일

– 대 상 : 강원도 양양군 서면 수리 도적사지 및 양양문화원내 석조유물

양양 도적사지 전경

양양 도적사지 출토 석조유물(양양문화원)

양양 도적사지 출토 6각형 대석

양양 도적사지 출토 6각형 옥개석

양양 도적사지 출토 청석탑

양양 도적사지 출토 청석탑 찰주공

❑ 기타

○ 석주선기념박물관 홈페이지(Homepage) 리뉴얼(renewal)

– 기　간 : 2012년 4월 ~ 2012년 7월

– 주　소 :　http://museum.dankook.ac.kr/

Intro Page

Main Page

○ 석주선기념박물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제작 보급

– 제작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10월

– 제　　작 : 석주선기념박물관・단국대학교 미디어콘텐츠연구원 모바일연구소

– 보　　급 : Android 및 iOS

알 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의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 8005-2389~2390
FAX : 031) 8021-7157

〈박물관기요〉 27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년 2월 27일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기도 수지구 용인시 죽전동 152
(031) 8005-2389~2390, FAX : (031) 8021-7157
제작 신 양 사 (02) 2275-0834